朝鮮日報
夕刊 八日(木)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川越蔣介石會談
軍官學校內서 遂開始

【南京八日發同盟】日中關係의前途를決할 川越大使 蔣介石行政院長의 直接交涉은 八日午前十時 軍官學校內軍事委員長官邸에서開催되엿다
日本側은 潛水通譯官中國側은外交部情報司日本科長 邵毓麟氏가 通譯으로 列席하엿다 (寫眞上은 川越大使 下은 蔣介石氏)

【南京七日發同盟】蔣介石氏는南京歸任以來 軍政兩當局과 對日問題에對하야 外交及 軍事兩方面에亘한 全面的檢討를 遂하고 最後的 決意를行한結果 마침내 八日 川越大使와 會見하기로되엿다 各方面의情報를 綜合하면 蔣介石氏는 川越大使와의 會見에잇서 어데까지 外交交涉에依하야 緊迫된 日中國交緩和에努力하야 大局的見地에서 打開策을講究할目算을述하야 日本側의諒解를 懇請하고 交涉決裂과如한事態는 絶對로回避하리라고 觀測된다 그리고蔣氏自身이 今後交涉에當함은 對內政策上 不可能함으로 其具體的交涉은 張群外交部長으로하여금 續行케될方針인바 川越 蔣介石會談은 大體로 一回限으로 終了되리라고 觀測된다

【南京七日發同盟】須磨總領事는 七日午後一時 外交部에 亞洲司長 高宗武氏를 訪問하고 八日에行할 川越 蔣介石會談에對하야 豫備的折衝을遂하고 今後會談日字 其他에對하야妥協하엿다

桑島局長南京出發

【南京七日發同盟】桑島東亞局長은 川越 蔣介石交涉을 압두고 外務省의 訓令을 川越大使에게 傳達하는同時에 現地側의報告를 詳細聽取하야 中央과現地의 聯絡을緊密케하고 七日午後五時南京發列車로 離京上海經由歸國途上에 올랏다는데 最近便으로 十三日頃 東京에 到着하야 有田外相에게 一切를復命할터이다

日本의潛水艦保有
英、好意的回答遷延
日中關係重大化한 것을考慮
但交涉介入은回避

【東京電話同盟】英國이 日本의 潛水艦保有에關하야 右는 에스카레타條項에 違反되지안는다는 見解를가지고 日本側에 回答하리라는 報道에 對하여는 아직 日本外務省에 通告가업스나 當局은 近近 回答이 잇스리라고 期待하고잇다
英國이 이日本의 潛水艦의保有에 關하야 에스카레타條項의 精神에 違反되지안는다는 日本의 見解와 全然同一한데 米國은 違反이라는 提議를 하여온것은 極히 자미잇는對照다 그러나 英國政府가 이에關한 對日回答을 遷延하고잇는것은 目下 日中關係가 重大時期에當하야 好意的 回答을 發하면 자미롭지못하다는 意見이 附加되여잇는것으로 如斯한 생각을가지고 잇다하면 何等 關聯性업는 兩問題를 取扱하는것이라하야 當局은 注目하고잇다

【倫敦七日發同盟】日中兩國關係가 重大化함에따라 英國政府는 北中及 長江一帶의 權益保全을 理由로 事態의推移에 異常한關心을 表示하게 되엿는데 佛國하바스通信社가 倫敦外交界의 消息이라하야 報道하는바에 依하면 英國政府는 日中交涉이 圓滿히 進捗되리라고 期待하고 大體로介入을 避할意向이라고 觀測되다 右報道에 依하면 東京駐箚英國大使 크라이브氏는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日本政府와 友好的會談을遂하고 日英兩國今後의 提携에對하야 所見을 開陳하엿다한다 英國政府의方針으로 傳하는바는 左와如하다
一、英國政府는 刻下의極東情勢에對하야 外交機關을 通하야 日本政府와 友好的雰圍氣가釀成되기를 希望하고 日中兩國交涉에對하야는 同交涉을 阻害함과如한 誤解를招致하는 제스추어를 一切避할方針이다
一、特히 北中及長江一帶의權益을 擁護하는 見地에서 日中兩國의 關係의 惡化를꺼리고 日本政府에對하야 溫和態度를 取하도록 要請하엿다

北方開拓御獎勵
御下賜金
二萬五千圓御吩咐

【札幌電話同盟】天皇陛下께압서는 北門開發에 기피 大御心을 御傾注하시사 今般陸軍大演習御統裁에 際하시와 前後十日間에亘한 오래신地方行幸을 仰出하시와 躬進北海道의 開拓狀況을가추御覽하압시고 七日 北海道開發獎勵의 惶悚하압신 御軫念에서 二萬五千圓御下賜의 御吩咐가게압신바 池田長官은七日行在所에伺候 松平宮相을經하야 感激하면서 拜受하엿다

閑院總長宮殿下
八日朝에御歸京

【東京電話同盟】特別大演習幕僚長으로 北海道에 가옵신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옵서는 若宮殿下와 御同車하사 八日午前十時二十五分 上野驛御着、御歸京하시엿다 또 菱刈、荒木、川島、財部各大將及小磯朝鮮軍司令官、西尾參謀次長、德川航空兵團長도大演習陪觀을마치고 同列車로歸京하엿다

廣田首相退道

【函館電話同盟】大演習陪觀次로渡道하엿든 廣田首相은 豫定과가티 七日午後七時二十分 函館着列車로來函 即時驛前 若井旅館에 入하야 一泊後 八日午前七時半 青函連絡船으로 退道할豫定이다

川越大使英大使懇談

【南京七日發同盟】川越大使는七日午前中 現地首腦部會議를開催한結果 日本側의 交涉具體策을 決定하엿슴으로 마침내 八日에 行할 蔣介石氏와의 會見에잇서 日本側의 具體策을 提示하야交涉展開에 備하고잇는데 同日午後一時三十分 松村書記官을 帶同하고 英國總領事館에 英國大使휴겐氏를 訪問하고 新任人事를 述하는同時에 約三十分間 懇談하고 辭去하엿다

英、太平洋防備制限
存續을、米國에提議
駐米英大使國務省을訪問코

【華盛頓七日發同盟】華盛頓駐箚英國大使린데氏는 七日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國務省을訪問하고 國務長官에 對하야 華府條約第十九條太平洋防備制限存續을 提議하엿다 이에 對하야 當局은 非公式意見을 開陳하얏는데 內容은 不明이다

防備條約說과
海軍當局의意向

【東京電話同盟】英國政府가 太平洋의 防備制限條約存續을 企圖하야 日米兩國政府에 交涉開始를 提言하엿다는 報道에 關하야 海軍當局은 아즉 正式으로 이러한 提議를接受한 事實이 업다고 否定하고 意見開陳을避하고잇는데 同問題에關한 海軍部內의 意向을 綜合하면 大要 左와如하다
軍縮의 根本原則決定으로 確立된 太平洋防備制限에 關한方針을 堅持하고 今後의交涉에 對應하려는듯하다
一、英米어느便에서 提案하든지 그提案이 公正妥當한것이면 交涉에應할 用意가잇스나 日本스스로 同問題에 關하야 提案할意思는업다
一、華盛頓條約 第十九條의 制限은 太平洋과 本土가 멀니떠러저잇는 兩國과 달러 日本은 臺灣 小笠原 千島等과如히 本土防備가 制限되고잇는 故로 日本은 十九條의 制限地區를 그대로 存續하기는 反對이다
一、今後存續을 交涉함은 何人이나 公正妥當하다고 思惟할 과如한 體系에 更改함을 條件으로함

英太平洋防備提言
空軍根據地問題도包含

【倫敦七日發同盟】英國政府는日米兩國政府에對하야 一九二五年의 華府條約第十九條 太平洋防備制限條項의 存續을 提議하야 왓는데 英國政府當局이 右提議를 行한것은 同條約의 侵犯問題가 發生하엿기때문이아니라 華府倫敦兩條約失效後 太平洋에잇서 無謀한 軍備競爭이 惹起될것을 避하려는 意向을 包含한것을 强調하엿다 英國政府의 提言內容은 不明하나 倫敦條約締結以來 空軍이 異常한 發達을 遂한데鑑하야 空軍根據地의 制限問題도 包含하엿다고 解釋된다

比律賓全土에亘한
反政府陰謀發露
사크타리派、共産主義者와外國公館을破壞
外國의干涉招來企圖

【마닐라七日發同盟】去三日마닐라市內各所에서 放火爆破事件이 이러나 大騷動을演出하엿는데 此에關하야 警察當局은 裏面에重大陰謀가潛在하고잇다고보아 嚴重調査를行하엿든바 依然사크다리派가 共産主義者와共謀하야 日本領事館을비롯하야 外國公館及外人住宅에放火하고 又는 爆彈을投하야 比律賓에對한 外國政府의干涉을 招來하고 現政府를 顚覆하려는 重大陰謀가 進行되고잇든 事實이 判明하여 關係者多數가 逮捕되엿다 警察當局은 事件을 重大視하고 全島各地에 嚴重한警戒陣을 펴고잇는데 地方에서도 사크다리派의陰謀計畫이 發覺되엿다고 傳하다 當局의말하는바에依하면 日本에亡命中의 사크다리派라모스氏가 陰謀의 실마리를操縱하고잇다고한다

北中經濟開發第一步
常務委員會를設置

【北平七日發同盟】冀察政權首腦者會議는 六、七兩日에 亘하야 北平市長 宋哲元氏邸에서 開催 秦德純氏冀察政府主席劉汝明氏 其他宋氏의 부레인트러스트를網羅하야 開催되엿는데 일즉부터 計畫中이든 冀察政權機構改革問題에對하야 愼重協議를遂한結果 冀察政務委員會에 常務委員會를 設置하고 宋氏를委員長으로 五名의 常務委員으로써 最高機關으로하야 政務圓滑敏速을 期하기로 意見一致되엿다 그리고 右機構改革問題는 田代中國駐屯軍司令官 宋哲元兩氏間의 協定에依하야 北中經濟開發實行의 第一前提이다

中樞院改革에
時期尙早論
今回會議는靜觀態度

九日부터 二日間에 亘하야招集될 中樞院會議는 同院參議改革問題가 懸案으로되어잇는此際 자못注目되여잇는데 今回의會議는 總督總監更迭直後이란 特別한 諮問事項提出도업서 純粹한 事務的態度를 取하고잇슴으로 當分間은 改革問題가 具體化하지안흘것이며 總督府首腦部에서는 時期尙早라는 意見이有力하다

中樞院會議서의
總督訓示要旨

明九日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會될 中樞院會議에 잇서 南總督은 會議席上에서 訓示를 與하야 大體知事會議에서 宣明한施政의 第二、四半世紀의 第一年에 잇서 理想과 目標에 對하야 反省을 새로히하야 將來에 對한 一段努力과 覺悟를 力說하고 敬神崇祖의 傳統的美俗의 維持及 國民精神作興에 言及하야 日鮮不可分關係의 國策을 遂하야 朝鮮統治의 深化擴大를 再次力說하고 特히 中樞院에잇서서는 多數參議를 更迭한것을 [illegible] 一層의 新分野로써 [illegible] 協力하라는것으로 [illegible] 中樞院改革問題는 一段保留되여 進捗될것이다

司法官會議
(第四日)

全鮮司法官會議 第四日은 八日 午前九時半부터 前日에 繼續하야 京城法院會議室에서 午前中은 覆審法院長官의 [illegible] 하고 午後부터 [illegible] 正과 [illegible] 事務에 對하야 [illegible] 하고 [illegible] 잇섯다

兩海軍條約失效後
建艦競爭도不辭
스완손米海軍長官言明

【華盛頓七日發同盟】스완손海軍長官은 新聞記者와의 定例會見에잇서 倫敦華府兩條約失效後에 잇서서는 國際建艦競爭도 敢히 不辭하겟다는 決意를 示唆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現行海軍制限條約이 失效되면 要案에는 要案을 脅威에는 脅威로써 對抗할수밧게업다 太平洋의 防備制限에 關한 英國政府의 提議에 對하야는 特히 言明을 避하엿다 要컨대米國政府로서는 條約이 滿期失効된後는 機宜의 手段을 講究할것을 述하야 太平洋上의 防備策에 對하여는 華府條約의 失効를 待하야 研究하지안흐면아니된다 失効까지에새로 諒解가 成立된다면 別問題이다 要컨대 今後情勢가 如何히 推移되는지 靜觀할수밧게업다 더욱米國政府로서는 豫算案이 議會를 通過하지안흐면 아무것도 할수업다 그리고 日本政府가 南洋委任統治領에對한 要塞를 構築한다는情報에對하야 質問이나왓스나 長官은 海軍省에는 何等情報가업다고 一蹴하엿다

뭇솔리니氏獨裁權分讓
女婿차노伯을首相兼外相에
自己는政府主席及黨總裁로
黨大評議會에附議乎

【羅馬七日發同盟】伊太利의 獨裁官뭇소리니首相이 그死後衣鉢을繼承할者로서 女婿차노伯을推擧할意向이잇는것으로 去六月同伯이 外相으로 任命된것으로써 明白한데 來十一月十八日에 열릴팟시스트黨大評議會는 首相의意를바더 同伯을 首相兼外相으로 昇進케할件을 附議할 方針이라고 傳한다 뭇소리니首相은 現在政府主席兼首相팟시스트黨總裁의役을二分하야 首相의 役割을차노伯에 讓渡하고 自己는政府主席팟시스트黨總裁의 두顯職을保持하고 獨裁官인 實權은 依然自己掌中에둘意向이라고한다

차노伯訪獨
獨伊墺匈聯盟結成目的

【羅馬七日發同盟】羅馬駐箚獨逸大使바절氏는 五日 베네치아宮에 뭇솔리니首相을訪問하고 要談을 遂하엿다 右懇談의結果 차노外相은 來十八日 팟시스트最高評議會에압서 伯林에赴하야 히틀러總統과會見을 遂하기로決定하엿는데 차노外相의 使命에 對하여는 種種臆測이 流布되고 잇스나 或은리라빌렌下에 對한 聲明을 與하기爲함이아닌가 하는데 結局 獨伊墺匈四個國을連한 新政府合從陣結成의 重大使命을 帶하고 잇는것은 確實하다 차노外相의使命으로 傳하는바는 左와如하다
一、墺太利國內에잇서 나치스宣傳問題
一、羅馬議定書에對한 獨逸政府의參加
一、近近維也納에서 開催할獨墺伊三國會商에對한 妥協
차노外相은 伯林으로 歸還하는途中 부다페스트府에들러 匈牙利政府當局과 會談을遂할方針이다

首都總攻擊作戰
叛軍、톨레도占據餘勢로

【부르고스七日發同盟】叛軍의로레도占據以來 政府軍은 全線에亘하야 叢條의비출 띄게되엿는데 叛軍總帥 프랑코將軍은 政府軍의 意氣沮喪에 乘하야 一擧首都 마드리드를點的인 과다라마山脈及 소모시에라峽의 前線에亘하야 總攻擊準備를 整備하고 還末을期하야 마드리드府로 向하야 前進할作戰이라하는데 現在 北方피레네山脈의 빌바오、산탄데르、오베이도及 南方말라가等은 依然政府軍手中에 잇스나 마드리드府가 陷落되면 此等 諸都市의政府軍은 他袖一觸의感을 呈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放送無電協議會
八日遞信局서開會

今年度 日本內地及外地合同放送無線電話事務打合會議는 朝鮮遞信局主催下에 八日午前九時半부터 遞信局分館會議室에서 開催 (日本內地로부터)長津遞信省電務局事務官 土肥東京遞信局事務官 大西大阪 小笠原名古屋 冲永廣島 武富熊本 駒木仙臺 各遞信局書記 (臺灣으로부터)大谷交通局書記 (滿洲國으로부터)油川郵務司屬 (關東局으로부터)秋山書記 (關東軍으로부터)福榮大佐、稻村中佐 井上少佐 (朝鮮軍으로부터)千葉少佐 櫻井大尉 (朝鮮으로부터)山田遞信局長以下 關係各課長 技師及 警務局關係官等 二十餘名出席 山田總督府遞信局長으로부터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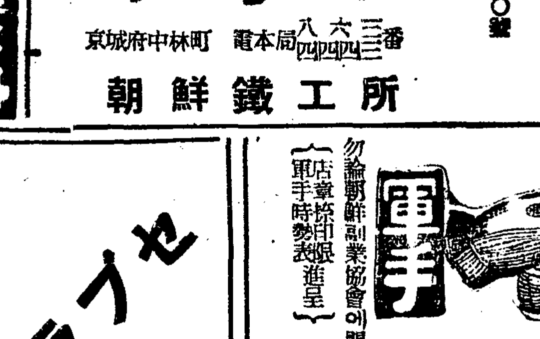
大藏省에서 新稅와改正稅率을發表、이로써財界가 爲先安心하는눈치。
◇ 그러나 川越對蔣介石交涉이 엇더케될는지 疑問임으로 氣分의 明朗化는難期。
◇ 郵票까지올리고、印紙稅를올리고、담배갑을올리고、
◇ 一般的 大衆的으로 負擔이늘어가는一方、物價까지 올라가는趨勢이니 景氣에도恐慌이잇는가。
◇ 뭇솔리니氏、首相도 너무오래하니까 首相만으로는滿足하기 어렵든지 政府主席이라새椅子를만들모양。
◇ 파쇼黨總裁及首相의椅子는愛婿차노伯에게 讓位하리라하니 獨裁의新世襲制라할가。
◇ 마음대로하고 못대로되는 뭇솔리니氏의일이니까、十一月黨大會에무를것도업겟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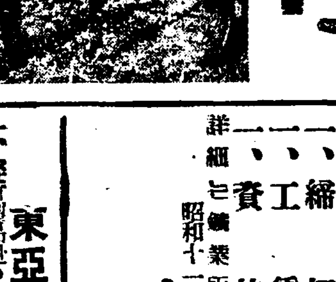
人事·集會

▲黃鎬國氏(中樞院參議)入京人事次來社
▲李應雨氏(中樞院參議)同上
▲韓澄氏(朝鮮中央日報記者)七日市內內需町一九六自宅에서 [illegible]
▲吉元鳳氏(京城遞信分掌局保險監督課長)新任人事次來社
▲吉田日出男氏(木浦郵便局長)同上
▲岩橋一郎氏(鮮滿運輸計算株式會社長)事務開始人事次來訪
▲郭斗學氏(同上副社長)同上
▲李康仁氏(同上常務取締役)同上
▲趙俊鎬氏(株式會社朝鮮取引所證券取引員組合副委員長)新任人事次來社
▲新田義民氏(朝鮮取引所證券部委員長 米豆部委員長)新任人事次來社

本社參觀(八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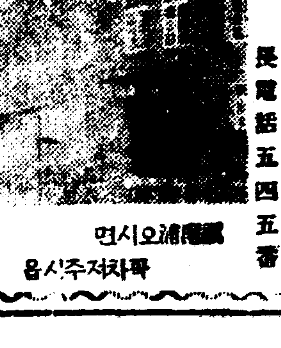
▲東萊日新女學校生徒三十三人 西川留吉氏引率로八日來社見學
▲靈岩支局主催京城觀光團二十八人 靈岩支局長引率로八日本社來訪

地下에埋藏된黃金은簡單한砂金試掘機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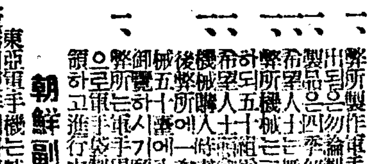
新案二二七二四〇號 特許一一二〇二九號 新案二二二二七號
京城府中林町 電話本局 三六八 [illegible] 番
朝鮮鐵工所

シタクシム
약제구중외
子菓涅尼簾潤
岩田大阪 大人ノ菓子

十一月一日開館 新築落成
스팀暖房 裝置浴湯設備 淨潔

大正旅館
電話五四五番
浦項오시면 驛前자동차주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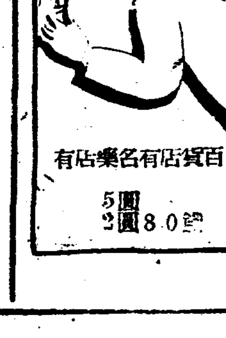
朝鮮文으로編輯된唯一의
速修 英語講義錄
▲朝鮮文으로解說된까닭에發音이正確(內容見本四錢切手)
京城府樂園町五五 英語通信研究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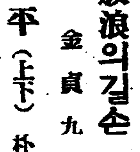
鑛夫募集
一、募集人員 一百名
一、勤務場所 永平鑛業所
一、締切 昭和十一年十月二十日
一、工賃 日給自八十錢至一圓二十錢
一、資格 體格健康經驗者二十才以上四十才以內에限함
詳細는鑛業所에來議
昭和十一年十月 日
咸鏡線旺塲驛前 永平鑛業所

東亞軍手製造家募集

東亞軍手
一、弊所製品만으로는 一般供給上堪當不能으로因하와今般專屬製造家를募集함
一、弊所製作軍手機는他機에比하면五割以上産出되고製品은勿論良好함을確實保證함
一、希望人은四季勿論永久的收入되는 無料敎授함니다
一、弊所機械는二臺(一組)로定하와 一般에配付하되希望人은五十組爲限又는販賣함
一、機械購入希望者는一時來社又는書面照會하시와 後弊所에서一時에五十八名職工의實地를詳細調査하신後에機械를配付함니다
一、弊所는軍手界에十餘年에多大한經驗으로軍手製造業으로最高權威를占領하고進行中에有한弊工場이외다
朝鮮副業協會談
東亞軍手機는特別簡單巧妙히改良을加工하야優秀히製作되와普通機에比하면五割以上産出됨을一般認證함
勿論朝鮮副業協會에問議하시면 一般的迷惑한點에對하야는弊所에問議하심은서도조읍니다(案內書請求次第送呈)
京城府黃金町七丁目四番地
(店章係印限進呈)(軍手時參表進呈)
電話本②五九五七番・振替京城一四五七一番
東亞手袋工場

朝報案內
求人 洋服部男子チョッキ、ズボン、職工鮮衣部女子세-ㄹ 周衣에經驗者 茶屋町一三三 金工場
住宅 建坪二七坪文化式二階洋館附衛生地帶 轉出함으로安價讓渡함 昌信町一三八ノ五一 電光二九二一番에

セブランス醫專病院
京城驛前 電(本)五一二二
檢眼無料 限學生
◎急告 世富蘭偲란商號를使用하야奸利를取하는奸商이京城、平壤等地에有하오니諸賢은照亮하시옵소서

補血强壯劑
參茸トニク
아침한잔이終日爽快

百貨店有名藥店有
5圓 2圓 80錢



新民謠 편지 朴孤松詩 海星曲 李花子
流行歌 放浪의길손 金貞九
楚漢歌 天下泰平(上下) 朴綠珠
春香傳 春香母나오는데(上下) 趙素玉
短歌 雲淡風輕 白鷗打鈴 伴奏 湖月 金小香
南道雜歌 農夫歌 자진農夫歌 主唱金楚香 外三人
草笛作詩 作曲
流行歌 달빛을안고 金貞九
新民謠 돌悠역제사 金李花 李眞鳳 李金 子鳳
西道雜歌 금心 心愁 비발
京讚雜歌 너 라 歌歌가가
俗謠 雜謠 十大王푸리(上下) 金周鎬
뉴-코리아레코-드

尙今生死未判인 百廿五名의漁夫

蝟島漁場遭難狀況漸次判明

【木浦】 긔보=지난일일오후실업시경에 전남령광군(靈光郡)위도(蝟島)락월도(落月島)안마도(鞍馬島)칠산도(七山島)방면에 출어중이든 어선이폭풍에 조난한소식을접하고 경비선금강환(金剛丸)과 어업취체선무등산환(無等山丸)이출동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재일일오후사시까지 위도어장(蝟島漁場)방면에서 조사한결과는 다음과갓다한다

【船舶】 發動機船全壞一隻 同半壞一隻 漁船全壞二十二隻 同半壞五隻 漁具流失五十四點(以上損害合計가 六萬五千圓)漁船行方不明二十二隻

【乘組員】 死亡判明十四名 死體流着三名 負傷者十五名 行方不明一百二十五名 合計一百五十六名

鹿島丸浮揚作業 七日夜에도失敗

埠頭에서 눈물짓는 遺族들의情狀可憐

【仁川】 인천근해의 조난선록도환(鹿島丸)의 인양작업은 매일가리계속하고잇스나 끄러온다는소식을 전할뿐으로 선체는의연 나타나지안코잇다 충남(忠南)과 황해도(黃海道)에서 모혀온유족들은 눈물을 먹음고 시체를차젓다는소식을 들으랴고 부두에 모혀슨 유족이 수십명에 달한다 그들은 몰려오는사나운 해풍을 쏘여가며 가슴을두들이며 서오는 전서구(傳書鳩)를 바라보며 고대타가 마침내지난칠일밤에는 작업이 순조롭게되야적어도야밤에는인천항내로도착되리라는 전서구편의소식을 듯고밤깁도록 고대하엿스나 무심한조물주의 작히는 또다시 실패를 입게하야 동십일시경에 또 다시 경비선은 조난선을끄내지못한채귀항하얏다 이를본유족들은 고대하든남어지에 오늘이나 시체를차저갈가하다가 락심천만하야 눈물머금고 도라서는 처참한현상이다 그러나 인천서에서는 팔일오전칠시부터 또다시출동하야 최후의작업을 하겟다한다

東京↔新京間 一日間에翔破

明春부터實施할計畫

【東京電話同盟】 일만당국의 공중을 련결하는 정긔항공은 현재의따이아에의하면 동경-신경간 소요시간의 약열세시간으로 동경을 오전아홉시에 출발하면 동일오후세시 이십분에복강(福岡)도착이되는바 조선과만주간편락이 업기때문에 부득이 복강서 일박을하야 결국동경신경간은 이틀이걸리는 불편한상태에잇슴으로 관계당국에서는일만련락 초특급계획을세우고 방금만주국당국과 협의중이라한다

이계획에의하면 동경을 오전여덟시에떠나 대판을거처서 그곳서 신경까지 최단거리의 직선코-스를 취하다는것인데도중에는 일본해를 부감하고 청진의 상공을통과한후 백두산산맥을 종단하야 동일오후네시에는 신경에착륙한다는초〃스피-드〃계획으로 실시는 래년부터 될모양이다

車中에서 작란고테重傷

修學旅行中의橫厄

칠일오후열시쯤에 휘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等普通學校)삼학년생 일행일백륙십이명이 그학교교련일(李一)선생에게 인솔되여 경주(慶州)견학수학려행으로부터 도라오든도중 안양(安養) 시흥(始興)간에서 동무끼리 서로작난을 하다가 중상을입엇다 전긔시각에 부내내자정(內資町)이십번지에사는 박영서(朴永緖)(?)가사과를 까고잇든중 여페안저잇든 청부정(淸府町)칠십삼번지 조의호(曹義浩)(?)가 나도하나먹자고 달려들든차에 과실로 박군의칼이 조군의배를 찌르게되엿다 뜻하지안흔 이사건으로 차안은 일대소동이일어낫스며 긔차가 영등포역(永登浦驛)에도착하자 곳 응급수당을 가하여가지고 룡산철도병원(龍山鐵道病院)에 입원시켯는데 상처는 복막에달하는 중상이나 생명에는 이상이 업슬것갓다고한다

살림에쪼들린 아비의窃盜

시외뚝도장리(纛島場里)김성환(金聖煥)(?)은 칠일오후 절도혐의로 본정서원에게 피검되엿다 그는정신병에 걸린스물두살먹은 아들을다리고 빈곤한생활을 유지하려고 칠일새벽 자긔집근방에서 리발소하는 정장흥(鄭長興)의집에 드러가서 자동시게를 훔처서 전당잡히려고본정쪽으로 나왓다가 그만본정서원에게 피검당한것이다

轢兒

이래일오후세시사십분쯤되여 시내효제정(孝悌町)백구십사번지의 일로경전전차운전수 리홍근(李洪根)

(?)이가 백칠십사호전차를 운전하야 왕십리(往十里)에서황

研道館開館式

四日에盛大擧行

【順天】 순천의 명망가인 서병규씨(徐丙奎氏)는 일즉부터 향토(鄕土)의 청소년(靑少年)들의 인생의 피여나는 가장 귀중한 시기에 부박한 현대의 유행과 향락에 흘음을 크게 우려하야 그들의 정당한지도를 꾀함에고심초사하다가 드듸여 그들의신체를 건전히 발달식히며 심신의 수양단련을 함과동시에인재를양성코저 사재일만여원을 투자하야 순천읍에 유도와 권투(柔道와拳鬪)의 수도장인 순천연도관(順天研道館)을 건설코저 작년시월에 긔공하야 동십이월에 준공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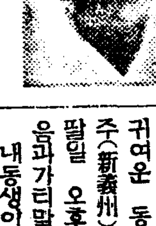
그리하야 유도부사범(柔道部師範)으로는 서씨의친자(徐氏의親子)동경강도관삼단 서정옥씨(東京講道館三段徐廷玉氏)가 지도하고 권투부사범(拳鬪部師範)으로는 서정옥씨의친제인 서정권씨(徐廷權氏)가 담당하게되여 이래지도에 경진하든차지난사일중추가절을복하야 동관에서 성대한개관식을 거행하엿는데 식을맛치고 곳 유도부관원의 홍백시합이잇섯고 그뒤를이어 서정권씨의 권투모의전이잇서 만장의갈채를바덧다고하며 순천지방에서는 서씨삼부자(徐氏三父子)의특지에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鐵道事故兩件

一名絕命一名負傷

칠일오후열시이십분쯤에 신북청(新北靑)을떠나 함흥(咸興)으로가든 림시화물렬차가 흥남(興南)과 흥남본정(興南本町) 사이를통과할때 원산(元山)긔점일백삼십팔키로 이백미돌 가량되는 길목에서 그렬차의 아플횡단하려든 함흥택시 흥남지점소유의 자동차와 충돌하야 동자동차는 선로밧게 밀려나가며 대파하엿는데 운전수는 요행히 경상을 당하엿슬뿐으로 승객은업섯다한다

칠일오후아홉시쯤에 룡산역(龍山驛)구내에서 렬차의 선로밧구는 작업을하든중 부내대흥정(大興町)칠백이십일번지 최룡식(崔龍植)(?)이가 수레를끌고가다가 전긔렬차에치어서 머리와 허벅다리에 중상을입고 너머진것을 룡산철도병원(龍山鐵道病院)에 떠메어다가 치료를하엿스나 가튼 열한시 오십분에죽고 말엇다한다



〃競技生活에서 隱退를勸誘할생각〃

……孫君令兄孫基萬氏의述懷

세계의 마라손왕 손긔정(孫基禎)군은 오는십이일경에 그리운 향리 경성에 개선할터인데 손군의 친형 긔만(基萬)(?)씨는 귀여운 동생을마즈려 멀리신의주(新義州)로부터 경성까지와서 팔일 오후본사를 방문하고 다음과가티말하엿다

내동생이 이번에 승리를엇고 도라오게된것은모다가여러분의 [illegible]성원과격려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긔정이가 도라오는대로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님을뵈옵고저 다리고갈작정입니다 내생각으로는 이번길을 최후로 경기생활에서은퇴하기를 권유할작정입니다

(사진은 본사래방한 손긔만 씨)

〃東洋琺瑯鐵器의〃 三百餘職工明罷

勞働時間短縮과賃金引上으로

釜山署에서現場監視

【釜山支局電話】 부산부 목도(牧島)에잇는 동양법랑철긔회사(東洋琺瑯鐵器會社)직공 삼백오십명(그중녀자오십명)중 약반수는 팔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안흐며 남어지 반수도 출근은하엿스나 일을하지안허서 형식상 전직공의 동맹파업이단행되엿다

이들이 동맹파업을 한리유는 지금까지 하로십이시간반식 로동을 하든터로 로동시간을 한시간만단축할것과 임금을 인상하여달라는 두조건을 직공대표 장모(張某)외 세명이 수일전회사측에 제출하엿든바 칠일 까지아모 회답이 업슴으로 팔일부터 파업을 하게 된것인데 부산경찰서에서는 좌좌목(佐佐木)고등계 주임이하사오명의 형사대가 현장에 달려가서 경게하고잇는중이다

電話高價買入
京城府南大門通一ノ三番地
京城電話仲買店
本局四七七番

航空郵便激增

경성우편국 조사에 의하면금년팔월중의 항공우편물 취급수는팔천팔백사십일통에 달하는데 그중발신은 사천오십이통 수신은사천칠백팔십구통이다 이것은 오년전인 소화륙년동긔에 비교하면 발신은십륙할팔분 수신은 십이할일분이 격증되엇다。

不良飮食店嚴重取締

시내종로서에서는 요사이 관내음식점가운데 료리점허가도업시 기생을불러다두고 놀음놀이를 영업하는곳이만허 취체를 하여오든바 수일전에도 청진정(淸進町)중정관(中正館) 서린정(瑞麟町)천일관(天一館)의 두음식점에서 귀생파취객이 엉키어 떠들고잇는것을 순시하든동서원이 발견하고 주인에게 엄중설유를 하엿다는데 압흐로는엄중취체를 엄밀히하야 위반자에게는 영업정지등 단호한처벌을하리라고한다

牛疫流行으로 鷄卵價格暴騰

【新義州】 소를해성갈모(牛疫流行)로 계란(鷄卵)갑이 폭등(暴騰)— 금년봄부터 평북일대에는소(牛)를해성갈모가 성행하야 일천여두의소가갈모에 걸리엇다함은 루차보도한바어니와 소갈모에는 계란이 묘약이라하야 병우에게 청기름(胡麻油)과 계란을 석거먹이면 완치됨으로 이에사용하느라고 계란을 구입하기때문에 한개에 이전오리하든것이 최근에는 갑작이한개에 사전오리 내지오전으로 폭등하야 평북에는 계란품절을 보이리라한다

本町署突然活動 官吏等四名檢擧

某種贈收賄事件綻露?

시내 본정서사법계에서는 칠일오후다섯시경 경성지방법원검사국 근등검사(近藤檢事)의 지휘로돌연활동을 개시하야 대화정(大和町)방면에서 현직관리(現職官吏)모씨를 검거한외에 시내각방면에서 중년의신사 세사람을 그서에인치하엿다 사건의내용은·일체비밀에붓치고 잇슴으로 알길이업스나 전긔모씨를중심으로한 모종의증수회(贈收賄)혐의가 탈로된것이아닌가한다

抽籤額橫領한 無盡外務員檢擧

시내 고시정(古市町)모 무진회사 외무원 길촌정리(吉村貞利)(?)는 칠일밤 배임횡령(背任橫領)혐의로 본정서에 인치되엿다

사건의 내용은 무진에 가입한회원의 추첨금을 사긔한사실이라고하며 계속취조중이다

醴泉事件의 韓一淸에五年役

高等法院의確定判決

소화칠년유월이래 경북 영주(榮州)와 례천(醴泉)지방을 중심으로 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고농민에게 공산주의사상을 보급식히려하엿다는 혐의로 대구지방법원과 복심법원에서 모다 징역오년판결을밧고 고등법원에불복상고하엿든 례천군개포면금동(醴泉郡開浦面錦洞)한일청(韓一淸)(?)에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공판은 팔일 고등법원에서고교(高橋)재판장주심 촌전(村田)검사관여미테 열엿는데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대로 상고긔각판결을내리여 원심대로 오년징역이 확정되엿다 가튼사건으로 삼년징역언도를밧고 상고중이든 김긔석(金己石)은 상고를취하하엿다한다

京軌慘變事件 一年役以下求刑

속보=경성궤도차충돌사건관계자 최경식(崔慶植)등 네명에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사건공판은 칠일오전열시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염견(鹽見)판사주심 주견(酒見)검사관여미테 열리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오후일곱시까지 사실심리를 마춘다음 검사로부터다음과가튼 구형이잇섯다 그리고 언도는 오는십일에내리기로되엿다

▲崔慶植 禁錮一年▲李達雨同八月▲金雲仙同上▲咸陽俊六月

京城驛發은八時四十五分

婦人들노리大會 出發車時間變更

들노리대회를 안양으로 간다는것은 여러분도 벌서 다 아실듯합니다。그러나 한가지 새로이 말슴드리지안흐면 안될일이잇습니다。먼저 사고에 나가는 경성역에서 떠나는 시간 오전 열시오십분 안양도착이 오전 열한시이십분 이라고하엿스나 다시 철도국과 상의한 결과 그날은 공일인만큼 여러가지 사정이 잇서서 그시간에는 떠나지못하고 부득이 경성역출발을 오전 여덜시사십오분 안는시간은 본래 작정과 갓습니다。그러니까 떠날때 경성역으로 모히는시간도 오전 일곱시반까지 모히도록하겟습니다。시간을 억이시지 마시고 꼭 이시간에 모혀주십시오

農村書堂曙光

普通學校로昇格 校舍도新築落成

【營口】 영구농촌서당은 지난일일부터 보통학교로 승격되여종래의사년제가 륙년제로되엿스며 그간생도는 만코 교실이협착하여 한상곤난하던중 자금일사천부터 증축하던것이 최근준공되여 지난일일부터 충분히사용하게되엿다고한다

東光醫院
專門科目
內科 小兒科 X光線科
特設 呼吸器病無料相談
往診應需 隨時
京城府貫鐵町一八四番地(大廣橋近處)
東光醫院 電光四〇番

邪戀의障碍物 男便과前妻所生을 打殺하야暗葬

情夫와逃走하는것을逮捕

稀世毒婦

【新義州】 사랑에미처서 남편과계자(繼子)를 죽인후 정부와도주하려든 독부(毒婦) 초산군고면문왕동신덕리(楚山郡古面文往洞新德里) 박흥주(朴興柱)(?)의처 차월(車月)(?)은 금년봄부터 동리김석긔(金錫基)(?)라는 남자와 사랑을매저 불의의 단꿈에 취하야오는중 남편과전처의딸 선녀(仙女)(?)가 사랑에 방해가됨으로 이를 죽이려고 지난달십오일 선녀를 자긔집헛간안으로 끌고들어가 곤봉으로 따리어죽이고 그날밤 두시경 남편이 잠든틈을타서 전긔선녀와가티 곤봉으로따려죽이시긴후 두시체를 강랑밧가운데 밀장한후 려행하얏다고 동리사람을 속이고 만주로 도망할준비를 하야가지고 지난칠일 정부인 김과가티 도망하든 도중 초산서원에게 발각되여 방금 엄중한 취조를 밧는중이라한다

金品强奪逃走

無言의覆面强盜 大同署員血眼搜索中

평양부외 대타령리(大駝嶺里) 자전거수선업 문단간(文丹幹)(?)의집에 칠일오전두시경 『타올』로 복면을한 괴한이 길이 여섯치가량되여보이는 식도를들고 드리와 주인과 그의안해를 이르키여 말은전혀안코 손짓발짓으로 돈내기를강요하여 현금 삼십일원 의복수점 팔뚝시계한개、놋그릇등을빼앗가지고 달어낫다는데 급보를접한 소관대동서에서는 범인을엄탐하는일방 피해자신고에도 얼마간의심점이 잇다하여 엄밀히 조사중이라는데 범인이말을 아니하는것으로보아 혹은 벙어리가 아닌가 한다고한다

慶北道內米豫想高 二百四十五萬石

【大邱】 경북도내에잇서 금년부터 조사원 삼천명을 동원하야

高等課長까지來仁 各方面서猛活動

靑年檢擧書籍押收

擴大되는咸南警察部員出動事件

【仁川】 함남(咸南)경찰부원수명이 지난칠일밤 인천으로와서 방금비밀리에 활동중이라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지난칠일 도산정(桃山町)리승업(李承業)(?) 김요한(金要漢)(?)등외 리모(李某)(?)등을 인치하는동시에 각종서적등을압수하고 엄중조사중인대칠일저녁에는 함남(咸南)경찰부북촌(北村) 고등과장과 시원(市原)경부가 급히 인천에출동하야 밤낫도록 서장실에서 밀의를계속하는일방 각방면으로조사중인데 탐문한바에 의하면 함흥(咸興)홍원(洪原)중심으로한 적색의비밀결사에관련된것이라하며 사건은얼마전 함남경찰부에서 단서를잡게된것이발단으로 검거망이 인천까지 뻐치게된것이라는데검거의방면은 어데까지미치고잇슬지 가장주목되는바라고한다

冷害民救濟工事 支拂勞賃三萬圓

窮極의災民에一助

【咸興】 함남도산업과에서 랭해민구제사업으로 지난륙월이십일부터 실시한 사방공사는 그후에도 의연순조로진척이되야 지금은팔분가량준공되고 시월말일까지 필할예정인바 매일재민들이 출역하는수는 일천칠백이십명가량으로서 구월말일까지 재민들에게떠러진 로임총액은삼만오백삼십칠원의 거액에 달하는대 여름동안궁극(窮極)에달한재민들에게 큰도움이되엿다고한다

天氣予報

概況 中國內陸의 高氣壓은 東쪽으로 移動하야 今朝는黃海로부터 朝鮮에퍼지엿슴으로 滿洲와日本本州方面에 漸次로 약터지고잇다 樺太地方에는低氣壓이 잇다 滿洲朝鮮西日本은日氣가 조흐며 琉球郡島東北地方은 흐리고 樺太地方은 비나 또는흐릴터이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개이며 明日은 좋흐리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一九度五
最低	五度四
今朝最低	一〇度七
今日正午	二〇度五

神宮競技出場의 平南卓球代表

【平壤】 第十二回 朝鮮神宮競技大會卓球部 平南代表(男子)는 다음과가티 決定되엇다

馬庚燮(安銀) 羅鎭一(無盡) 金甲淳(專賣) 金成煥(道廳) 金昌道(養生產) 崔炳燮(府電) 吳贊麟(西電) 洪淳復(亞細亞) 羅基亨(鎭南浦) 崔永杰(日鐵) 元貞淳(鎭無盡) 山下(日鐵) 崔在昌(鎭南浦)

籠球大會出戰次 大邱啓星校入京

大邱啓星學校籠球團一行八名은 今八日부터 開幕되는 朝鮮體育會主催의 全朝鮮綜合競技大會籠球競技에 參加하기爲하야 崔榮浩氏引率下에 八日朝에入京하엿는데 一行으로本社를來訪하엿다 그리고 同校의멤버는다음과갓다

▲C朴光鎬 ▲F安命洙 崔元植 ▲G卞丁洙 潘基華 ▲補缺 姜石宗 朴武秀 朴炳國

運動競技

올림픽陸上軍 東京到着

【東京電話同盟】 올림픽第二陣陸上軍은 八日午前八時半 東京驛着列車로入京하엿다

約五千의 出迎人이잇서 熱狂的歡呼의 萬歲소래는 東京驛을 振動케하엿다

祖國의榮冠을 질머지고 멀리 伯林에遠征하야 堂々히 陸上日本의威力을發揮한 四十七의勇士를마지하는데 果然曾往에보지못한歡迎이다 『마라손』의孫選手와 南選手 棒高跳의西田、大江 長距離의村社以下 모다明朗한元氣로버레끄옹인 顏色을보히다 短距離吉岡選手가 눈을껌벅거리며 默默하고잇는 姿態는 愉愉해보인다

二十分後 驛前廣場에 다이엿는데 歡迎群은 一擧에 그數는二萬에 達하야 選手團을 包圍해버렷다 鐵鎚投의 松野選手의捧持한 日章旗만이 그中에서 번득일뿐이고 어대에 選手가잇는지 알수업다

겨우 二列縱隊로 整列한代表軍이 二重橋前에 行進을開始한즉 丸之門一帶는 아조交通遮斷이되여버렷다

그리하야 爆發的歡迎裡에 宮城遙拜를하고 이어서 明治神宮에參拜하고 午後에 鎌倉에 向하야 鶴岡八幡宮에 參禮하엿다

편지는이러케 쓰는것이다

落合文學士發表

他人과의交際에나 商取引에나편지를쓰지안코는 他人에게 意思를뜻하고 萬事가잘될수잇스나 생각한것反對로잘못쓰게되거나 생각한것을充分히쓸수업스면 드디어 義理를缺하거나 相對方의感情을害하야 失敗를招致하는 境遇가만타 今番東京市小石川區大塚町三十六番地 大東社書店에서發行한 落合文學士著 『手紙百科大辭典』이라는冊은 누구나곳쓸수잇게만든冊이다、이冊만잇스면 훌륭한편지文章家가되고 他人에게편지를 代書식힐必要도 업고 自由自在로쓸수가잇다、內容은 交際文 商業文 暑中寒中 病問安文 年賀 祝賀 謝禮文 督促 願文 弔文 用事文 男女交際文 就職書簡文 履歷書의書法 其他八十項에亘하야 알기쉽게 一一히實例를드러잇다、同書는 定價一圓五〇錢이지만五百部限하야 單一圓으로 前記大東社에 葉書로申込하면 送本하게되여 代金은 着本後拂로잇다、

腫症仙藥 趙膏藥

趙膏藥과 腫氣!
腫氣에 趙膏藥은 不可分의關係를갓고잇슴니다
腫氣의 大小를 不計하고 腫氣어데부다 시趙膏藥을차즈시요 부처서 속히낫고나은後痕跡이업는것이 趙膏藥의特長이올시다

效能
○모든창부스럼 ○모든 合종 ○유종 ○담종 ○발찌 ○담결니는데 ○구창 ○낙상 ○어혈 ○견비 ○요통기타무명 ○종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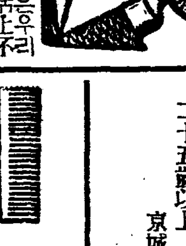
藥價 二十錢 五十錢
全國各地有名藥店에서 販賣합니다
京城總智町
本天一藥房 天一神丸 總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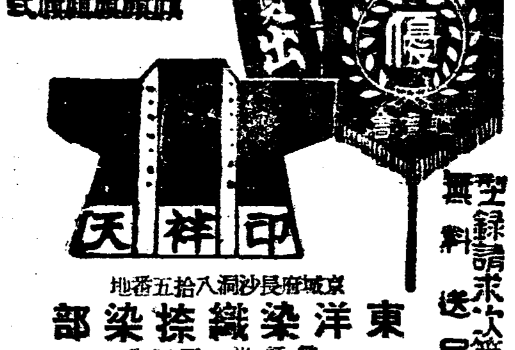
朝鮮舞臺總動員第一回公演
第二週 十月七日早日
文藝部
悲劇 도라온아들 一幕
萬夫의아들로서希望을엇고갈곳을다가실패하지못하고다시故鄕에찾저올때는어머니와、언해、그리고 딸、이한家庭에일어나는悲劇이다
大悲劇 人 靑海作 四幕
사람은人情때문에죽게되고살게되다이劇은人情때문에죽고사는사람의心理를그리여내엿스니人情때문에事件은엇더케되겟는가눈물의바다를이루고야말것이다
南宮春作
喜劇 慈善家萬夢 二幕
(靑春座湖南地方巡業中)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三三四

巨篇連發!十月七日부터大封切
코럼비아社特作全發聲大活劇
로스·래다만氏監督作品!
아리소나怪盜列車
렛막고이氏決死의猛演
도로시가리바-孃助演
脫獄囚…殘忍無慚한惡漢…二八處女…黃金!아모-트이-ㄹ엄샐고아리소나特急列車는驀進한다神人이戰慄할冒險劇의千態萬
마스코트社超特作全發聲連續
리부-스이-ㄴ氏監督作品!
뛰는幽靈第二篇
렛트그랜지-氏主演
도로시가리바-助演
愈出愈怪!漸入佳境!!本格的活劇篇은只今으로부터展開…?
PCL超特作全發聲
脚色演出…岡田敬
これは失禮
横山エンタツ 花菱アチャコ 大珍演
貫鐵町 優美館 電光三九五

團成社
五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六時半
◇유나이데트社超特作映畫
미리암호푸킨스 조엘 막크리스 主演
生活의道
가을철에보는映畫란이런사진일게다어떠케해야사라갈수잇겟는가?젊은이들이여이러한映畫가보고십지안흔가?
◇獨우과社特作映畫
한스알빠스、카리할트主演
國際間諜團
戰爭이오게되면먼저스파이들의무서운暗躍이잇다、손에땀을쥐게되는凄絕壯絕한그들의前哨戰!
◇新興키네마社超大作映畫
名優市川男女之助主演
五月晴日本槍
大谷日出夫、森靜子共演
日本映畫界今秋最大의豪華版登場
(大週特別封切)、마즈르카、無法道三德曲、市丸の小唄篠

有給外務社員募集
二十五歲以上 京城其他全鮮各地駐在 履歷書送付할事
京城府長谷川町一二一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朝鮮支部

돈모히는조흔家庭工業
信用잇는最高의會社의意氣잇는大事業邁進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第一의工業은우리日常生活上不可缺의世界的消耗品으로서婦女子製造容易한조흔工業으로本社營業가장信用及取引上斷然東洋一의權威잇는獨占的事業임規則書一覽하시오西電話八五二
第二의家庭工業여러분으로할수잇는日用消耗品의製造至極簡便各土地의材料로自由히製造永久히社와現金取引할수잇는實質的工業을推獎함有意하신분은申込하라
大阪港區市岡四市場通
內外貿易株式會社

記念用 印入タオル 實品用
優勝旗 會旗 團旗 校旗 船旗 書旗 附屬品一式

天祥印
型錄請求次第無料送呈
京城府長沙洞八拾五番地
東洋染織捺染部
電話光一三二八

第三回生徒募集
▲出願期日 十月二十八日까지
▲入學資格 普通學校(六年)卒業者又는同等以上程度者
▲試驗日 十一月二、三兩日
應世農道學院
全南光山郡極樂面雙村里 (電話六一〇番)
規則書其他請求 要二錢切手

弱い子を丈夫に

榮養과發育을增進하는 胃腸榮養 錠劑 わかもと 와가모도

드디여秋冬이도라왓습니다 身體가弱한小兒는 暑熱의煩憫에서解放되여 食慾도增進하고 肥大해야만할 時期입니다 此機를逸치말고 榮養劑라도――모든父母들의 共通한생각일것이라고생각하지만 그럼에는虛弱兒에게 가장必要한發育促進의 비타민B複合體를비롯하야 種種의貴重한 榮養素를 包含하고 胃腸의 活動을强하게하고 身體의 抵抗力을增進하는『細胞賦活』의 作用에優秀한『錠劑わかもと』를 給與하는것이 가장 効果가 만흔方法입니다

食慾을增進하고 消化力을强하게한다

榮養增進의根本인 食慾과 消化力을强하게함에는『錠劑わかもと』의 큰特色입니다 苦味劑等으로刺戟하야 食慾을增進식히거나 消化劑等으로 다른데서 消化作用을 補給하는것과달라 胃臟全體의機能이 强化되여 그結果로서 自然히食慾도 增進하고 消化作用도活潑하게되므로 藥을中止식히면 처음과가티 그대로되여버리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小兒들飮食物好不好도 矯正하기쉽고 여러가지 飮食物을 먹을수잇고 榮養偏頗가되는것을防止하고 便通도 또順調롭게됩니다

發育을促進코 抵抗力을增大한다

나면서부터 虛弱하거나 哺乳時期에 胃腸을傷한 小兒는發育이 느저지고 筋肉과骨骼이나뻐지고 키도자라지안흐며 身體도 여웨서 胃腸病과感氣呼吸器病等에도 걸리기쉽지만 그러한小兒에게는『錠劑わかもと』를 給與하면肝油其他一二의 成分만을 包含한榮養劑와가티 體質에 適當不適當이던가 副作用을念慮할必要가업고 發育을促進하는 비타민複合體와 諸種의酵素其他成分의 作用에依하야 必要한榮養素도 補給하면 自然食物에榮養素를 攝取하는힘도 旺盛해지고 發育도조화저서 身體도 점점肥大해지고 抵抗力도昂進하야 病에도 걸리지안습니다 人工榮養의幼兒는 母乳兒에게지지안흔發育을 보이고잇습니다

學業、運動等의 疲勞를輕減한다

學校에단이는小兒는 學課工夫와 身體의狀態가 充分히 견딜수잇는가 업는가에 注意하지안허서는 아니됩니다 밤에잘때잠꼬대를하거나 꿈에놀래거나 盜汗이나거나 또食慾이減하야 元氣가업고 나제도 졸고잇는것이나타나면 學課와運動이 小兒에게는 無理하게되는것이며 健康이 威脅밧는證據라고 생각해야합니다 그것을防止함에는『錠劑わかもと』를 給與하십시요

精神的으로나 肉體的으로나 疲勞를 防止하고 能率을向上하는 効果가잇는 비타민B複合體와 燐酸化合物을 豐富히包含하고 細胞賦活作用에相副하야 그疲勞를 輕減하고 다시一層學業과 運動에堪耐할수잇는 腦力體力을 養生합니다

注意 「錠劑わかもと」가 헤ー왜菌劑이므로 헤ー왜菌劑이면『錠劑わかもと』와 同樣의 効果가잇다고생각해서는 큰잘못입니다 헤ー왜菌에는 예를 멧千이라는 種類가잇서서 그中에서 醫藥으로所用되는것은 僅少한範圍에限해잇습니다『錠劑わかもと』는 가장優良한菌種을選擇하야製劑하고 製劑의方法도 世界的硏究에依한것이므로 本劑의効果는 오직本劑에依하여서만 어들수잇습니다

「錠劑わかもと」의特色

「錠劑わかもと」는 人造化學製劑에依한 對症療法以外에 生物製劑에依한綜合療法의境遇를開拓한 헤ー왜菌劑입니다 作用의根本은 身體障害器官의衰弱을恢復하고 그機能을健全하게함에잇고 이에依하야 胃腸의活動을强하게하야 榮養을增進하고 結核病等의消耗症에는 病菌에對한 抵抗力을增進식혀 治療를促進하는等 各方面에 効果를 發揮합니다

よろこびを語る

외아들을 너무귀히녁여失敗

長野 高野英助

내게는 다섯애가잇습니다 四人은女兒로서 單一人의男兒는 今年尋常四年生이지만 외아들이라고해서 幼少時부터 너무貴히녁여서 身體가非常히 弱하고 特히胃腸이나뻐서 조곰만過食하여도 猛烈한下痢와腹痛을 이르킵니다 그러키때문에 食慾은減하고 學校는每月二三日 쉬지안는날이 업슬形便이고 만흔때는 五日이나쉬게됩니다。 그래서 집안사람들은 非常히念慮하야 附近藥房에가서 仔細히 容態를말하니까 主人이『錠劑わかもと』의大瓶을내주셋습니다 그래서 나는아직그런藥을 써보지안헛스니 적은瓶이잇스면 그것을 달라고하여 그것을가지고 半信半疑로먹여보앗습니다。 처음은 너무効果가보이지안터니 그藥을다먹어갈때에야 効果가나기始作하엿습니다 그래서 또藥局에가서 그말을하니까『또한병써보라』고해서 今番은信用하고 大瓶을사왓습니다 그藥을먹이는동안 점점胃腸이조화저서 血色도조와지고 非常히肥大하여젓습니다 집과親戚은大端히 기뻐하엿습니다 藥局에서 일러준『錠劑わかもと』에 깁히感謝하는同時에 그服用을繼續하엿더니 놀날만한 身體가되여 只今은 하로도缺席하지안코 元氣잇게通學하고잇습니다

虛弱한女兒가 發育이佳良케돼

兵庫 秋野みどり

長女良子는 나면서弱하야 九歲까지는 胃腸과感氣로 一個月中 二十日은藥을服用코잇섯습니다 婦人雜誌로『錠劑わかもと』를알고 곳 적은것을사서 試用하엿더니 只今까지의 胃腸을害하지안케되엿습니다 그래서 三次나적은것을 사서먹엿더니 發育하든해가 多少肥大해지는것가터서 다음에는 큰것을사서 五年間繼續하야먹엿습니다 한學年을올라가서는 끄틈으로 五六番이든것이 우로三番이되엿습니다 胃腸도感氣도 이저버려 食事도놀날만치 만허젓습니다 이것도 다『錠劑わかもと』의 德澤으로생각하고 기뻐합니다 나도 라는물건에 十分도 못타고잇섯는데『錠劑わかもと』를 먹으면서부터는 한時間올라도 아무렇이업서놀러갈수도잇서서 기뻐합니다

愛兒と小學校の 教育掛圖寄贈

小學校에서不足한教授用掛圖를 わかもと本舗의 篤志로 每月編纂하야 寄贈하게되엿습니다『錠劑わかもと』一瓶마다『掛圖寄贈引換券』이 부터잇스므로 사시는분은 그券을 一枚라도 버리지말고 隨意의 小學校에寄附하십시오 小學校에서는 그券을모아서 本會로보내주시면 規定의枚數에依하야 本會編纂의掛圖를寄贈합니다 詳細는小學校에서照會하는대로 通知합니다

東京芝公園 教育資料會

藥價低廉

三百錠入 壹圓六拾錢

一千錠入 五圓

三百錠은大人에는二十五日量·十歲前後의兒童에는約四十日量·五歲前後에는六十日量 [illegible] 該當함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舗 榮養と育兒の會

東京市芝公園 振替東京一七〇〇番 電話芝代表一一七五番

二 罌粟屛風 二
學生美術展覽會特選入賞作
向上女子實業學校成度顧

家庭

"청추라 조혼시절 들노리 가사이다"

명절이 잇때야 일만하는 여러분 부인네끼리서 하로쯤 쉬어봅시요

때는 청추입니다。 하늘은 한업시 맑고 놉고 들판에는 오곡이 무르익어서 사람의 감정을 자연히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혼시절에 집안에만 드러안저잇는것은 얼마나 적적한일입니까? 그럼으로 요사이는『하이킹』이라는것이 가벼벗석 유행을합니다。『룩샥』을 등에지고 가벼운 자리차림으로 야외로 나가거나 산에올나서 한끗 맑고 깨끗한 공긔를 쏘이면서 대자연의 품속에안겨 청한한 하로를 소창한다는것은 도회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업지못할 유쾌한일입니다。 건강상으로 보아도 그러하거니와 정신상으로보드래도 나날이 밧부게 조들리고만 지나다가 이러한 한가한 하로를 만드러서 모든 근심걱정을 이저버리고 기뿌게 하로를 지난다는것은 얼마나 조흔일입니까?

우리 가정부인으로 말하면 일년을 내가야 집안에서 일하시는날이 태반이지 별로히 이러한 한가한 노름노리를하지못하는것이 보통일듯합니다。 명절이 되여도 경어지구의 의복이나 음식을 작만하기에 골몰해서어느틈에 지난지도 모르게되고 보통때라도 호번하나단출하나 살림사리란 일반이라 언제 몸빼낼여가가 잇습니까? 그러나 실상 생각해보면 이러한 불행이다 시어는일입니다。 시절이 바뀌여도 모르고 지나며 문밧게 세상이 어떠케되는지도모르고 일평생 집안에서 살림치다거리만 하라는법이 어듸잇습니까? 이것은 물론 파거의 제도가 나흔탓이는 잇겟는하지마는 도한 살림을 아주 귀모잇게 잘산다면 아모리 가정부인이라고하드래도 하로 이들음은 집안일을 이저버리고 문밧소창을하드래도 별로 큰탈은 업슬듯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일직이 사회를위해 여러가지 사업을해 왓지마는 특히 오늘날의 처지와가튼 가정부인들만을위해서 해마다 이때가되면『가정부인 들노리대회』라는것을 주최해왓습니다。

우에서도 말하엿지마는 우리가 설이니 추석이니하는 명절을가젓다고하드래도 그것은 다른사람의 명절이지 가정부인네의 명절은아닙니다。 명절이라면 좀 놀기도해야하지안습니까。

그럼으로 이 들노리대회는 우리네 가정부인의 명절이되게하려는것이 본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맷해를두고해내려오는 이사업이 해마다 성황을이루어서 하로를 유쾌히 노시다가 집으로 도라가실때 모다 웃는 나츠로 헤여지는것을보면 본사로서도 무한히 기뿐일이엿습니다。 금번은 전번에비해서 좀 느저지기는 하엿스나 들노리를하기는 출지도 덥지도안흔 요사이 입니가 한창 조흘때입니다。

자세한 규정은 이 가정면에잇는 사고를보시면 아시겟지마는 장소는 안양으로 정햇습니다。 첫째 오고가는데 그다지 멀지도안코 가깝지도안캐스럽 알마질뿐아니라 자리도 널버서 조흐며 실과치고는 밤은 말할것도업시 업는실과가업습니다。 풍속으로 도라다니며서 떠러진밤한톨리 줍는자미는 도주고사는밤 한섬가지는것보담 낫습니다。 이밤줍기외에도 어찌하엿스면여러분을 좀 더재미나게 시게할까하여서본사에서는그재미나는 노름꺼리를 생각하느라고 머리를 동여매고잇는중입니다。 그래서 대강생각나는것도잇기는하나 이러한것은 미리 알게되면 나중에 재미가업게되는것임으로 별로히 알려드리지안습니다 와보시면 알것이고 안오시면 나중에 드르시면 후회하실만한것을 생각해내엿습니다。

끗흐로 말슴할것은 압흘날이 얼마남지안햇스니 될수잇는대로 속히 신청하시되 애기를 데리고오면 피차에 힘드는일이 만흐니까 될수만잇거든 떼여노코 오시도록 하시고 다음것은 사고를보시면 아실듯하기에 이만그칩니다。

朝鮮日報社學藝部主催 家庭婦人『들노리』大會

너무 일만마시고 날세조흔 이철에 하로쯤은 경치조코 공긔조흔곳에서 유쾌히 자미잇게 노시도록하십시요。 본사 학예부는 여러분을위하야 조흔날을 택해노코『들노리』준비에바쁩니다 아모쪼록 이날 들노리에 만히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時日 十月十一日(日) 雨天順延

아침 아홉시반까지 정거장(京城驛)으로 모히십시요 만약 이시간에 느지시면 미안하지만 모시고 가기 어렵습니다
갈때 京城驛發午前九時三十分—安養着午前十時二十六分
올때 安養驛發午後五時三十二分—京城着午後六時二十分

場所 安養(驛에서步行으로十分)

밤, 포도, 배등속의 과실이 만히나기로 유명한 안양입니다 들노리할장소는 밤나무가 그득하고, 물맑고, 경치조흔 자리밧입니다 정거장에서 거리는 대아서 불과 십분바게 안걸립니다

會費 (每人에八十錢) 定員二百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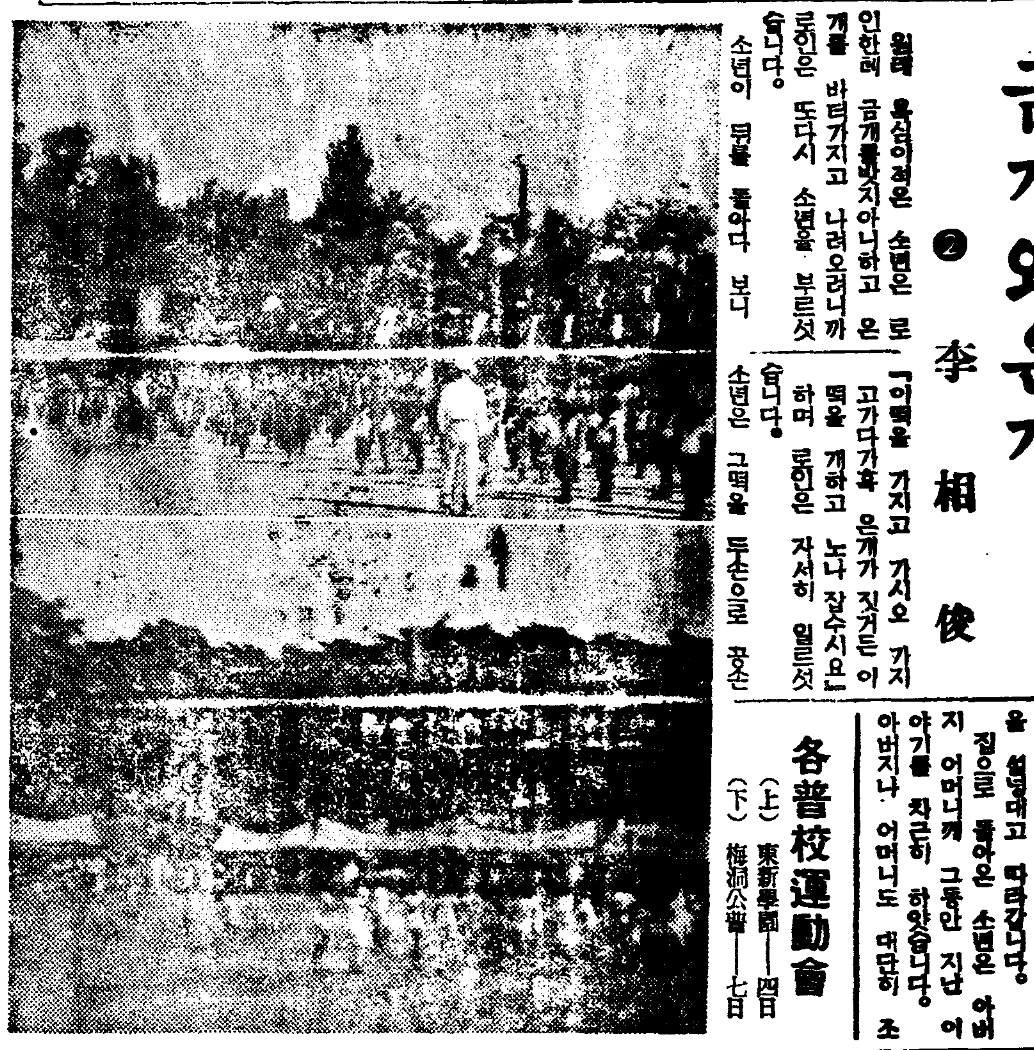
(가)회원은 부인에게한합니다 (나)점심은 각각 싸가지고 오십시요 (다)어린애들은 되도록 데리고 오지마십시요 부득이 한경우면 할수업스나 보통회비의 반액(즉 四十錢)을 더내서야됩니다

申請期限 (十月十日正午까지)

신청하실이는 본사서무부(庶務部)로오서서 회비를가지고 신청하시고 그리고 회원증을 바다가십시요 당일 참가하실때에는 반드시 그 회원증을 가지고 오서야합니다 [illegible]

餘興

[illegible] 자미잇는 경기와 보물찾기 등이 잇고 상품도 [illegible] (×××××)이라는것은 말슴안드립니다



각보교운동회
各普校運動會
(上) 東新學園——四日
(下) 梅洞公普——七日

금개와은개 ②

李相俊

원래 욕심이적은 소년은 로인한테 금개를받지아니하고 은개를 바더가지고 나려오러니까 로인은 또다시 소년을 부르셧습니다。

『이떡을 가지고 가시오 가지고가다가혹 은개가 짓거든 이떡을 개하고 노나 잡수시요』하며 로인은 자서히 일르셧습니다。

소년이 뒤를 돌아다 보니 소년은 그떡을 두손으로 공손히 바더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엿습니다 이상하고나! 그— 캄캄하든 밤길은 마치등불을켠드시 점점 밝어젓습니다 은개는 설렁 설렁 소년을 따라오드니 얼마를 와서『멍—멍—』지즈며 벗채기 시작하엿습니다。

소년은 로인이 이르신말슴을 잇지안코 곳떡을 뜯어 은개에게 자고루까지 주어 버렷습니다。

은개는 떡을먹고서야 도소년을 설렁대고 따라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아버지 어머니께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자근히 하엿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도 대단히 조흐한 흥미를 하엿다고 기뻐하셧습니다。

밤은 점점기퍼갓습니다。

『지르륵—지르륵—』

별안간에 이상한소리가 요란히 들림으로 소년이 깜작 놀라 눈들어보니 그곳에는 금은보배가 마치 흙을 끼언든것이 쏘다젓습니다。 소년은 기뻐하야 아버지 어머니를 깨워서 세식구가 날이밝도록 춤을 추며 뛰고 조와 하엿습니다。

허나 은개는 어데론지 가버리고 마럿습니다。

그후 그—금은보배를 갓게된 소년의집은 잘살게되고 소년의집이 부자로 잘살게되엿습니다。

소문은 이곳 저곳에 아니떠진곳이 업섯습니다。

그 소년이살고 잇는 동리에 욕심이 만코인정이업는 마음씨가 흉한 사람이 살고잇섯습니다。

소년이 은개를 어더가지고와서 부자가되엿다는 말을듯고 욕심쟁이는 그—맑은 시내가에가서 일부러 까마귀가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잇섯습니다。

원래 마음이 흉함으로 고기가 만히 잡힐리가 업섯습니다 아침부터 오정이 지내고 저녁때가되도록 까마귀는 날라오지아니하엿습니다。

욕심쟁이는 분이나서 펄펄뛰며

『그놈의 까마귀가 낫을 가리나?』

하고 웅얼대며 잇스려니까 까마귀가 날러와 욕심쟁이 안저잇는 곳으로와서 하는말이

『나는 시방 배가곱하 못견듸겟습니다。 미안하오나 그고기를 하나 주십시요。』

젊은이는『올치 인제는되엿다』늙고 곳 잡은고기중에서 제일조고마한것을 내여주엇습니다。

까마귀는 역시

『당신의 은혜는 아니잇겟습니다』

하고 고기도 먹지안코 그대루 물은채 날러가 버렷습니다。

욕심쟁이 젊은이는 생각하기를

『흥 인제 까마귀가 날러갓스니 그조고마한집으로 차저갈간』

하며 허둥허둥 잡은고기도 내버리고 소녀가잇는집—

금개를 가지려고 한거름에뛰여가니 안에서는 쏜살가티 금개한마리가 나오드니 은개가쪼처나와 욕심쟁이게로 들어 덤벼 야단을 첫습니다。

욕심쟁이는

『올지! 저—금개와은개 저것만가지고가면 부자로 산다。』

하며 기뻐하면서 집안으로들어갓습니다。 로인과 소녀는 흘끔흘끔 눈치만을 보다가

『저— 배가곱흔차에 고기를주서서참맛잇게 먹엇습니다。』

하고 소녀가 말하니

욕심쟁이는

『무얼여? 그것쯤을——』

대답하면서 금개와은개를바라다보앗습니다。

그팔을 보든 로인은

『여긔 은개와 금개가 잇스니 마음에 드는것을 가지고가시요』

젊은욕심쟁이는 눈이휘둥그래서 떨어지기전에

『금개를 주십시요』

『금개를 주세요』

하고 로인께드로 바삐달려들엇습니다。

로인은 한번우스시면서 금개를 내여주시면서

『이떡은 가다 개하고 나노아 잡수시요』

하고 말슴하셧습니다。

젊은욕심쟁이는 조와서 어리저리 금개를 떼를돌고 집으로 돌아오는길이엿습니다。

금개는 얼마를 오드니『멍—멍—』지즈며 비채기 시작하엿습니다。

욕심쟁이는 가지고 오든떡을 돌려 개를주라고 하다가 제가 먼저 맛을보니 그 훌륭한맛은 말할수가 업섯습니다

『어이 이것을 너를주어? 내가 나먹겟다』

그떡을 개는 주지안코 제가모다 먹엇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욕심쟁이는 금개를 방안에다 들여다노코 돈이 쏘다지기만 고대하고 기다리다 잠이 깜박 들엇습니다。

『우직끈』하는소리가 별안간들림으로

『그럼은 그럿지 돈이다! 돈야!』

하고 젊은 욕심쟁이는 벌떡일어나서 밝을내다보앗습니다。

『무엇?』

욕심쟁이는 눈이 뚱글에 젓습니다。

그곳에는 돌 흙이 비퍼붓듯이 눈을 못뜨게 쏘다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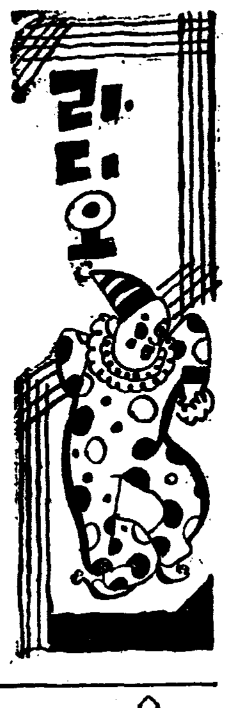
그러한 까닭에 욕심을 너무채우면 이사람과 가터 된답니다 (끗)

임신못할가걱정

問 금년이십세의 과혼녀자인대 삼년전결혼하기전에 회人배로몹시고생한일이잇습니다 그로이함인지 결혼후로도 매일 아래人배가 몹시아프며 월경시에는 이러나서일도못합니다 또경도도 일정치못하며 이개월만에 나 일개월반만에 잇슬때도잇습니다 이리되기를 삼사년이나게속되얏스니 임신도못할가걱정입니다 하로바삐 조흔도리를가르처다 근심을 덜게하야 주시기바랍니다 (注文律女生)

答 당신의증세를보면 처녀시대에 회배로만 돌리기어렵습니다 경도가불순하고 또월경시에 고통이심하다하오니 발육부전(發育不全)이나아닌지 부인과전문의사에게가서 한번진찰하야보십시요 임신여부도 잘알게되실것입니다

醫學博士 朴[illegible]來



라디오

八日(木曜)

◇午後六時 童謠齊唱과獨唱 1、갑동이아리랑(齊唱) 2、고초장(齊唱) 3、귀뚜람이(金獨唱) 4、송아지 말희기는집 5、고향의봄(齊唱) 6、우리아기날(尹獨唱) 7、에헤가네(齊唱) 8、배사공(朴獨唱) 9、가웃(齊唱) 安洞幼年主日學校兒童 指揮 朴正遠 伴奏 金昌嬌 尹誠善
◇同六時二十五分 兒童新聞 伴奏 金鋼任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 朝鮮의農産物 城大豫科生物學敎室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二) 第二高普敎諭 金維珏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不須嘶 二、唱劇調 春香歌中夢中歌 曹學鏞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一、오봉산 二、에헤라 三、도라지打令 四、[illegible]아리랑 五、사발歌 六、홍타령 高一心 姜學洙 李中善
◇同九時 라디오드라마 "善과惡"一場 配役 金弘均(男便)……李流星 康氏(그의妻)……林玉璘 朴熙英(그의친구)…李石元 張麗伯……金鎭賢 張顯龜……金貞姬 라디오劇研究會 指揮 李如水 效果 效果班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이야기 日瀨高
◇同六時三〇分(大)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生活改善講座
◇同八時 尺八合奏와新日本音樂 吉秋花山、橫湖甲寺山外

九日(金曜)

◇同八時三〇分(大)工場歌 尼ケ崎工場職工
◇同八時四〇分(東) 淸元
◇午後〇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大丈夫 二、唱劇調 赤壁歌中 東南風비는데 姜桂紅 鼓手 池龍九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綠과健康 醫學博士 李榮俊
◇同三時一〇分·(東)敎師의時間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童謠 一、꽃겨난동생 二、고향의봄 三、꿀뙤지 四、오뚝기 五、시골아츰 六、고향하늘 七、꼿 培英學院兒童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伴奏 尹福榮
◇同六時三〇分 講演 普專敎授 金興濟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三) 第二高普 金維珏
◇同八時 (東)管絃樂 組曲 하리-야노스 一、幻想曲『이야기의시작』二、위-ㄴ의音樂時計 三、歌曲 四、戰鬪와나폴레옹의敗北 五、間奏曲 六、皇帝와侍從의入城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얼러·헤르베르트
◇同八時三〇分 一、흡냥 二、영산타령 三、뭐산타령 李命山 李命吉 卓福萬 金泰運
◇同九時 歌謠 一、將進酒 二、相思別曲 金花香 金蘭珠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基礎英語講座(八) 豐田實
◇同一〇時三〇分(東)家庭敎育講座 岩井勝二郎
◇二時(大)家庭講座 石澤吉麿
◇午後四時五分 講談 呂井探
◇同六時(東)偉人의이야기 東京放送童話研究會
◇同七時三〇分(京)講演 高瀨正次良
◇同八時(東)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三)人形淨瑠璃 四ツ橋文樂座より中繼

十日(土曜)

◇午後零時五分 俗曲 一、山念佛 二、靑春歌 三、날늬리아 四、濟陽아리랑 五、방아타령 六、양산도 七、漢江水打鈴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奚琴 池龍九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生活의秘訣 李貞圭
◇同六時 兒童劇"올방아" 全三幕 配役 玉粉…李桑玉 아버지…金贊國 男植…李昌圭 少年(一)…崔永三 少年(二)…尹哲洙 少女(一)…都熙淑 少女(二)…吳終姬 少女(三)…李順周 指揮 林鴻恩 참새學校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解說 金好童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 伴奏 都貞淑 效果 效果班
◇同七時三〇分 講演 視力保存에對하야 醫學博士 申[illegible] 成尙動
◇同八時 懸賞라듸오小說當選作 "빛나는靑春" 延銀龍作 姜弘植
◇同九時 流行歌 全玉 伴奏DK 管絃團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基礎佛語講座(九) 丸山順太郞
◇同一〇時三〇分 婦人講座 大久保彌雄
◇午後〇時五分(東)輕音樂
◇同二時三〇分(關)天皇陛下[illegible]
◇同六時 (東)偉人의이야기 東京放送交響樂團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東)라듸오드라마
◇同八時五分(東)長唄
◇同八時三〇分(東)漫談 坂田仙八外
◇同九時 時事解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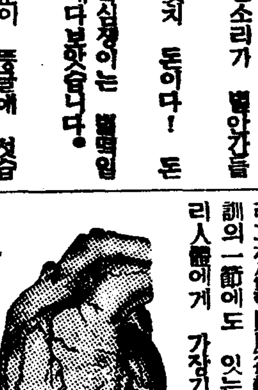
★曆★

十月九日(金) 甲子·金·鬼·滿 舊丁丑八月小(廿四日)
●祭祀에宜함
●秋分二十三日(舊初八日)
●寒露八日(舊二十三日)

鬪病の秘訣は 血行を順調にして體力を養ふ法

病毒으로血壓이놉고 頭重耳鳴肩臂痛과 手足의麻痺로苦悶하는게에분 最近發表의新療法

血液은身體의主人이오 恒常淸淨하고循環을 조케하야毒血을 남기지말고 몸은心의 奴이니 運動을식혀疲勞식힐것이다 라고有名한貝原益軒先生의 養生訓의一節에도 잇는바와가티 우리人體에게 가장긴요한것은 그것은淸淨한血液과 그正調한循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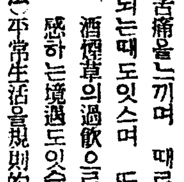


腦溢血·中風의 原因과오랜病毒

動悸·喘息으로 苦悶하는狹心症은

動悸喘息이快方에 血壓도常態까지

沖繩縣 高橋三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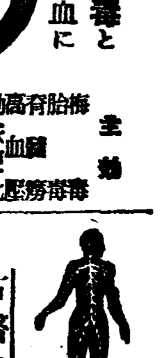


手足의麻痺도只今은 上氣肢氣도업서지고

沼津市 [illegible]雪枝

小屋良明先生創製
排毒と順血に フルチ錠

主效 梅毒 淋病 腦溢血 動脈硬化 高血壓 中風 心臟病 狹心症 喘息 [illegible]
(全國有名藥店にあり)



古醫學에서新發見
無代進呈
必讀 病毒排除 血液循環と瘀血療法 (四六判五十頁)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 振替口座東京大五三〇八番

—九·十月創作評(二)—

淸秋作品의珍羞盛饌

安懷南

가을은 食慾이 旺盛하여지는 季節인데 最近의 創作界는 그야말로 佳肴珍味가 가득하여잇는 豐富한 食卓이다.

李孝石氏의 『오리온과 林檎』
朱耀燮氏의 『未完成』
李泰俊氏의 『장마』
朴泰遠氏의 『川邊風景』
李無影氏의 『鳴咽』

임의 그 獨特한 쿡카리로써 斯界에 定評이 잇는 이분들의 作品은 보기만해도 누구에게나 군침이 생길만한것이고

金裕貞氏의 『貞操』
李箱 氏의 『날개』
朴魯甲氏의 『春甫의得失』
金東里氏의 『山祭』

우리文壇에서 가장 獨特한 存在로되어잇는 이분들의 料理에는 저절로 저깔이간다.

蔡萬植氏의 『明日』

이분의 捲土重來하는 모양은무엇보다도 반가웁고

梁柱東氏의 『黃金과사랑』
朴英熙氏의 『薔薇園에서』
尹基鼎氏의 『寂滅』

評論家로서 名聲이 노픈 三氏의創作도 異彩를 내이는 飯饌이며

全武吉의 『에치오피아魂』
宋影氏의 『春夢』
李北鳴氏 『한개의典型』
姜敬愛氏 『安息』
韓仁澤氏 『무덤』
金光洲氏 『野鷄』
洪 九氏 『서분이』

等等도 입맛을 다시게한다. 그리고도

李周洪氏 『餘韻』
尹泰榮氏 『寒巷』
韓文德氏 『人夫』
池奉文氏 『亂倫』
姜文弼氏 『때의敗者』

潑剌한 氣勢를보이는 이분들의 力作과

安懷南氏 『花園』

拙作이야 말할것도업시 한번저까라 對面도 못하는 이를테면 粗品의것에 不過하는것이지만 如何間 全體로보면 悅惚한 메뉴이다.

아마 우리文壇에서는 近來에 업는 壯觀일것이며 批評家로서는 처음 대접받는 盛饌일것이다. 巧妙하게 女流作家의 出品이 하나도 눈에띄이지 안흔것은 遺憾이로되 나는 이 榮光스러운 食卓을 자랑하며 나의 가을을 마지한 食慾과 함께無限한 幸福으로 홀려마지안는다

나는 暫間 앗질하면서 무엇을 먼저 집어먹을가 하고 망성거리지 안흘수업다. 남의作品을 批評함에 잇서서는 當該作家들의 有名無名을 分別하지말고 또 그들의 力量에 對하야서도 아무 先入觀을갓지 말어야 公平한 態度라고 한때에는 일러왓스나 나는 이와 反對로 생각한다. 사람이란 어떠한것에든지 先入觀念을안가질수 업는것이며 作品批評에 잇서서도平素에 名作과愚作을 만낫든 經驗에 비추어서 먼저 읽고십흔 作品과 나종으로밀고십흔 作品으로 差別하고 區分하는 心情은 自然스럽고 오히려 公平하기도 한일인것이다.

于先 李泰俊 朴泰遠 李孝石 諸氏가번쩍하지마는 이분들의 作品이야말로나에게 잇서서는 旣往 맛지례를두고 실컨 떠먹고 난음식이며 마음껏 뜨떠먹고를 려는 갑비다. 勿論 조흔飯食이기는하나 나는 좀더 別다른 珍味를 찾고십흔것이다.

金東仁氏 李泰俊氏에게 比較하야 李孝石氏 朴泰遠氏의것이 훨신 새롭고 도한進步되여 잇는것이라고 나는 여러번 讚辭하엿지마는 運筆과 食卓의 關係인지 나의 입은 벌써간 노파지고 味覺은모르는 사이에 奢侈스러워진것갓다. 밥도먹고 국도먹고 고기도먹고난 지금에는 시원한 시키나 수정과를좀 먹어봣스면 하는것이다 飽食狀態에 잇는 나의 胃腸을 爽快하여 줄수잇는것은 이것外에 업슬것갓다.

우리文壇에 한참 白飯第一主義가 流行하엿지마는 그럿타고 올해가튼 凶年에 白米와 쌀밥이 價値가 업다고 하는말은아니다. 커녕 크게 價値가 잇는것이다. 그러나 나의 食卓에하얀 쌀밥만 사발사발 늘어슨다면 나는 견될수업슬것이다.

『네오·휴마니즘論』

—그根本性格과創造의精神(二)—

⑥ 金午星

더욱이 우리가 말하는 實踐은 일은바 實用主義的이라도 區別하지안흐면 안된다. 그들은 世界의 모든事象을 오직 人間生活의 實用性에 依하야 評價하려한다. 이러한

……**實**…… 用性은 實際에잇서는 저—亞米利加人의 享樂性을 意味하는것이니 世界가 人間의 享樂의 對象만일수는 업는것이다. 그러타고 實踐을 單純히 物質的인것으로 解釋하는것도 正當한것은 아니다 웨그러냐하면 實踐은 人間의能動的主體性을 認定치안코는 생각할수업스며 能動的實踐에 依해서만 人間은 世界의 發展에 參與할수 잇슴으로써이다. 그러므로 實踐的世界觀은 世界를 發展的으로 보면서 世界의 發展 그것은 오직人間의 實踐을 通해서만 完美하게 遂行되는것으로 보는것이 아니면 안될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世界觀은 어떠한論理的構造를 가질것인가?

實踐的世界觀은 먼저 世界를 한개의 統一體로서 把握하기를 要求한다. 웨—그러냐하면 實踐은 觀念主義의 그것과가티主觀에 依한 客觀世界의 構成, 또는 生産을 意味하는것이 아니요 世界의 發展에 參劃함으로서 거긔에

……**創**…… 造와 發展을加하는 行爲임으로 世界自體가 한개의 統一的發展을 보혀주지안허서는 안될것임으로서이다. 實際에잇서 世界現象을 混雜多한것으로 보는것은 主觀에 依하야 客觀을 合理化시키려는 法則的思惟 또는 理想的世界觀의 主觀的 恣意的 虛構에 지내지 안는것이다. 世界는 우리의 主觀如何와는 獨立하야 그自體에 一定한 統一的秩序와 發展의原理를 가지고 잇는것이다. 人間이란것도 世界의 統一的現象에서 보면 한개의 世界內의 存在로밧게 볼수업는것이다. 人間은 歷史的社會的所産임과가티 또한 世界的所産이다. 人間은世界內의 온갖 自然的存在와 한가지로 世界內에서 自然生的으로 생겨서 自然的으로 죽어간다. 人間은모든自然과 一定한 交互作用으로 秩序를 維持하고가티갈은自然物과의 交互作用이 업시는 生存을 維持하지 못한다. 그리하야 世界의 온갖 되어지는 事實에 制約을 밧지안흘수 업는것이다 人間의

……**歷**…… 史的 社會的制約은 이러한 基體的으로는 한 世界的 自然的制約을 意味하는것이다. 이러하야 우리는世界를 人間까지包括한 한개의統一現象으로보지안흘수 업는것이다.

그러나 世界의 이러한 統一現象이 人間을 世界的事象속에 埋沒시키는 理由는 되지못한다 人間이 世界內의 存在라고하여서 人間의 特殊性을 世界內의 모든 自然的存在와 混同할理由는 되지안는것이다. 웨—그러나하면 人間은 世界內의 存在이면서도 自己와 對立시켜가지고 그것을 征服하며 變革시키며 거긔에 創造와 發展을 加하고 잇슴으로써이다. 人間이 世界內存在이면서도 世界內의 모든 存在와 自己를 區別시키는것은 人間은 實踐力즉能動的行動을 가진까닭이다. 行動은 달은 自然物에게도 잇다. 그러나 人間以外의 모든自然物의 行動은 그것이

……**衝**…… 動과本能에 依한受動的習慣的인 反復에 지내지안는다、그러나 人間의 行動은 어대까지나 變革的이요 創造的이요 發展的이다. 人間은 本能이나 衝動에 滿足치안코 理智의힘으로써 文化的創造를 企圖하게된다 人間은 大地가 주는 自然的原料에 滿足치안코 大地의心臟을 開拓하야 새로운 生産物을 獲得하려한다 自然이 주는 晝間의 太陽에만 滿足치안코 夜間의 光明을求하야 불과電燈을 發明한다. 自然이준 體力에 滿足치안코 機械의 發明에 依하야 自己네의 征服慾을 擴大시킨다. 이리하야 人間은世界內의 모든自然物을 征服하며 變革하고 잇스며直接或은 間接으로 모든自然物에 人間的인 原理를 強制함으로써 自己를 創造하며 發展시키고잇는것이다. 人間의 能動的 實踐力은 世界를 人間的인 世界、人間化의 世界로서 變化시키고 잇는것이다.

—危篤— ④

李箱

○內部

입안에 짠맛이돈다. 血管으로淋漓한墨痕이몰려들어와서나보다. 懺悔로벗어노은내구긴皮膚는白紙로도로오고붓지나간자리에피가롱저매첫다. 尨大한墨痕의奔流는온갓合音이리니分揀할길이업고다므른입안에그득찬序言이캄캄하다. 생각하는無力이이윽고입을빼겨제치지못하니審判바드려야陳述할길이업고溺愛에잠기면버언저滅形하야버린典故만이罪業이되어이生理속에永遠히氣絶하려나보다.

○肉親

크리스트에酷似한襤褸한사나이가잇스니이이는그의終生과殞命까지도내게떠맛기라는사나운마음씨다. 내時時刻刻에늘어서서한時代나誠辯인트집으로나를威脅한다. 恩愛—나의着實한經營이늘새파랏케질린다. 나는이육중한크리스트의別身을暗殺하지안코는내門閥과내陰謀를掠奪당할까참걱정이다. 그러나내新鮮한逃亡이 그끈적끈적한聽覺을벗어버릴수가업다.

○自像

여기는어느나라의떼드마스크다. 떼드마스크는盜賊마젓다는소문도잇다. 풀이極北에서破瓜하지안튼이수염은絶望을알아차리고生殖하지안는다. 千古로蒼天이허방빠저잇는陷穽에遺言이石碑처럼은근히沈沒되어잇다. 그러면이겨틀生疎한손짓발짓의信號가지나가면서無事히스스로워한다. 점잔튼內容이이래저래구기기시작이다.

『運動會』……齋洞公普 盧浩楨 作 (學生美展特選)

학교 운동회ㅅ날 노는모양을보고서

齋洞公普 盧浩楨君談

사일저녁 신문을보고 특선된것을 아럿습니다 나는 구월초순부터 그리기 시작하야매일 정심시간과 학교가 파한후에 학교운동장(屋上)올은 畵에서 매일그리엿습니다

그러다가 운동회날 우러만 아이들이달리면서 너머지는것을보고 그것을 그려보앗스면 하는생각으로 집에 도라가서 꼿그리기시작하야 이상하로선생님께가저갓더니 선생님이아조잘되엿다고하면서 이것은 꼭입선되리라고 하기에 나도아조기뻣습니다。그리고 그림그리는사이에는 언제던지 선생님이 주의하여주엇습니다 다 선생님의덕택입니다

(寫眞은 盧浩楨君)

熱中하는 귀여운天分

擔任先生 韓世熙氏談

금번 귀서의미전(美展)출품에는 운동회(運動會)로는 비관하기로 충분치못하엿습니다

그러나 될수잇는대로 지도하여서 조흔작품을 엇기에노력하엿습니다 전보담 아조필치(筆致)라든가 여러가지점에 잇서서 나어젓습니다 로군(盧君)은 현재삼학년급장으로 운동생입니다 매일가티 렬심히 그린관계로 그사이에 대단진보된것갓습니다 원체그아이는 다른아이들보다달려서 그림그릴때에도 조곰이라도 마음놋치안코 화면(畵面)전부를 그림대하합니다 금번 출품한작품도 그아이가말한바와가티운동회날 우연히 제재(題材)를 어더서 그린것입니다 가족은 아버지는 도라가시고 어머니슬하에서 학교에다니고 잇습니다

이아이는 아프로 자긔의공부여하에 따라서 확실히 이방면에 성공하리라고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프로 이방면에 류의하야 지도할작정입니다

不可視의世界

濾過性病原體 (上)

鄭槿陽

『로—벨트、코호』以來로、顯微鏡으로서 볼수잇는 病原體가、뒤를이어 發見되여 細菌學의黃金時代를 演出하엿다。그러나、病原性生物中에서、우리들이가지고잇는 顯微鏡으로는 充分히볼수업슬만치 微細하고 細菌過濾器를通過하는 所謂濾過性病原體가 存在한다는것은 疑心할餘地가업다。

佛蘭西의 가장著名한細菌學者『파스돌』은 狂犬病原體를 이種類의 病原體이리라고 想像하얏다。實驗的으로 濾過性病原體의存在를 確實히 證明한 것은、『이바노프 스키—』(一八九二年)의 業績이다。氏는、煙草의모자이크病에 對하야 硏究하얏다。이疾病은、單子葉、雙子葉植物을덥리侵犯하는病이다。뒤니어、『뢰후렐』氏는、口蹄病의 病原體에對하야、其過性을 細密히 硏究하얏다。그後에 이方面의 硏究는 細菌및過濾器의 製造及그應用의發達로서、크게開拓되엿다。

그後로、顯微鏡도 차々精巧해지고、또特殊한細菌染色法도 發見되여、只今까지는 到底히 볼수업든것이四千分之一미리메타—程度의것은、顯微鏡아래서、詳細한點은 알수업스나 그存在만은 알수잇게되엿다。此等의微生物은 그構造가平等한것、그數가 莢大한것、그것이、어떤疾病과 一定不變한關係를 가지고잇는點으로보아、그疾病의病原體이라는것은 當然히想像할수잇는것이다。

在來는、濾過性인것은、全部를 볼수업는것으로 생각되여왓스나、볼수잇는微生體로서、細菌濾過器를通過하는것도 不少함으로、不可視病原體라는槪念은 그대로濾過性病原體에 適合시킬수는업다

그러면 細菌濾過器란 어떤것을 말함이냐。普通使用하는것은 硅藻、陶土等을 加熱해서 만든것이다。그壁에는 至極히微細한間隙이잇다。普通 顯微鏡으로 볼수잇는病原體는 이間隙을 通過하지못한다。그러나 濾過性病原體는 이間隙을 通過하는것이다 이러한 病原體를 單純히病毒이라고불러 一般細菌과 달리생각하는사람이만타。

이病毒의本態에關해서는 古來로 만흔考案이 거듭되여왓다。元來 微細하기 짝이업는 生體임으로 그性狀도 自然 不明한 點이 許多하야 微生物界에 잇서서의 系統的位置關係도 勿論判明되지못하고、濾過性病原體의어떤것은 細菌에屬한다고 생각되며 또어떤것은 細菌이라기보다 오히려 原虫類에 所屬되다고생각케하는 點이잇다。

現在 여러사람에게 미더지고 잇는 代表的인생각은 細菌과갓고 그形狀이 細菌보다도 훨신 적기는하나 그래도 한개의獨立한 微生物이라는 見解다。生活細胞를 품지안흔 人工培養基에 繁殖하지안코 生活細胞를 加入한 人工培養基에서만 增殖한다。即 普通細菌은 普通營養素만든 培養基에 培養시킬수잇스나 所謂濾過性病原體(病毒)는 이러한 無生物만으로된 人工培養基에서는 發育하지안코 生活細胞를 加入한 (腦, 心臟等 生活臟器의 一片을 加入한) 所謂 組織培養基에 依해서만 培養시킬수잇는것이다。

病毒은 그種類에따라 動物或人體의어떤組織과 特殊한親和力을가지고잇다。이點에서 다음과가티 分類할수가잇다。

(一)全體에感染하는것。사마에잇서서는 野口氏의硏究로有名한 黃熱、痲疹、猩紅熱等이요 動物에잇서서는 豚이나 鷄에오는페스트가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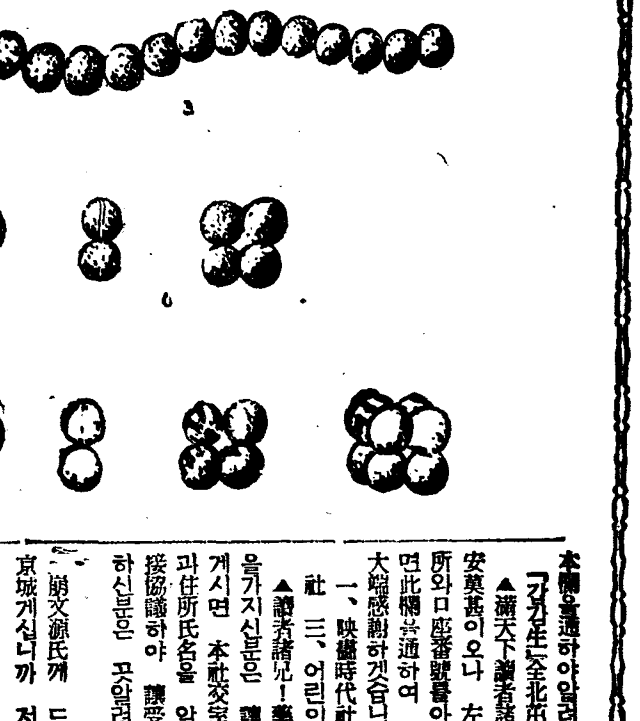
(二)局所에限하는것으로 上皮細胞性인 濾過性病原體에 因한것으로는『도라홈』傳染性軟屬腫(一種皮膚病)等。

(三)皮膚感染性病原體에依한것으로는 天然痘、口蹄病等。

(四)神經系統感染性病原體에依한것으로는 狂犬病脊髓灰白質炎 鷄天然痘等

(五)血液感染性病原體에 依한것으로는 鷄의白血病馬의惡性貧血等。

(六)特殊한關係를 가진는것으로는 流行性耳下腺炎(?)午의肺炎等이잇다。



(寫眞은 各種球狀菌)

—隨筆— 秋思二題 (下)

鄭飛石

일허진詩心

童謠따라 떠도는 백장미의꿈은 한송이 大陸의꿈에 안기고、執着에서 도라가는 젊은자라리인觀翁는 노—脫線을計劃한다

自己의環境에 不滿을느끼는것이 人間의本性이라면 滿足이라는文句부터가 벌서 不許스러운存在갓다 움직이는것은 固定한것을 憧憬하고 固定한것은 움직이는것을 羨望한다 發展의 原動力이 거기잇는지모르나 何如든 未知의것을 꿈꾸는것은 衛術송이처럼 아름답고 귀엽다 오래간만에 풀바레 주저안저 머리를고추고 밤하늘에 金砂가티 無限로 헤러진 별들을 바라보앗다

『별하나 나하나 의詩를 읇으며 天鵝가티 별을窺視하다가 문득、그깜밧이는때 어떤사이없을 느끼자

『한개 한개의 별은 한가닥 한가닥의 生命을 가젓다』

하고 부르지즌 젊은不遇詩人인 海건너親舊가 머리에떠올랐다。田村淸三郞! 이즈러야이즐수업는분들中의 한사람이다 田村君이 별의詩를 지은때는 中學校三學年때엿다 本是 애꾸눈이君은 詩的才能과 文學的才能이 아울러 욍시 早熟하여 想像力과創作力도 벌서 拔群하엿섯다 當時 君은 그詩를 나에게보이며 感激에 넘치는 態度와 語調로

『君! 君! この詩は 出來てるだらう?』하며 항상 버릇으로 나의팔을 흔드른것을 지금도 나는印象 깊게 記憶하고 잇는것이다 그後 東京서 苦學生活을하는君과 자조만낫고 만나면 거의밤을 새엿섯다 나는 시방도그때의 君의 熱情한 모양과、그리고 서도、纖細한 그의神經을 이즐수는업다 그後에는 松江高校入學後 一次、그리고 昨年에 年始狀이잇섯을뿐 그다음消息은 漠然가다 杳然하다 허나 나는밤을 對할때마다 十年前의 田村君의 詩를回想하고 同時에 生活으로 르고 完全히 憧憬과꿈의世界에서 未知의아름다운 그무엇인가를 차저보려고 애쓰든 어린적 이노—그때나 나의 童話에 며리에는 별이뜻고、詩가 結晶하자 詩心은 너무나 功利心에게 驅逐當하고말엇다 永劫의 時間의흐름속에서 오직 그날그날의 生活를 바라볼때 나는오래간만에 —참으로 오래간만에 청승스러이 !얼마나 그리운 그時節이러요 옛날의氣分을 갓엇파나마 느낄수잇는 法悅을 가젓다 그러나 느끼다는것은 벌서 그속에 파묻처서 自身 濁合溶化되엿든時節!— 그時節이 다시도라오기를 祈願하는것을 아!이제는 헛된 꿈이아닌가? 그때에는、손끄테 다을듯 다을듯하든希望의 꼿다발도 이제는 눈아페 보이지조차안흐니 어린적의꿈도 어느새 조각조각 부서지고말엇슴까? 星座를 바라보며 일허진넷날의 情緖을 고요히 흘러보노라 보든詩情이 모두 예와가티 多情多感하여 고요히 저므는 마음의밤에 하늘빗을 나그네인지 나의 가슴으로모여드는 星座의 빗 心에서부터 다섯지 나의 향은 가슴으로 모여드는 讚辭를 옥고 花園으로 나를 가젓다 나무나무마다 별빗이 새깻 우짓는 귀뚜람이의 속에 자자드는 나의마음의 는 저물어가는 한 어데로흘러 려는고? 달빗 나부껴흐르는밤 하늘에서 永遠의나라를 찬양하며 고 永劫어이 떠오르는 생각이 시드는 이가슴에서 다시 솟아볼수 잇슬까? 저별 나와가티 말 꾸는 休火山이되여지이다 星座 해버린나무가되고말고 未來를꿈 아페 무릅을꿀고 엎드리지말고、별과더부러 노래하는 天使와 詩心을 빼프려지이다 (完)

讀者社交室

▲生은今年十九歲인 男兒이온데 藥劑師試驗을 보려하오나, 그工夫法을 몰라서 大端고민中이오니 未安千萬이오나 藥劑師試驗課目은 何課目이오며 冊子는 如何한冊이며 또冊을 求할려면 무슨冊店에서 發賣하는지 讀者社交室을通하여 下敎하여주시면 感謝하겟슴니다 그러고期日은어느때입니까. 釜山一讀者

▲讀者諸兄 早稻田文學講義錄 讓渡하실분이게시면 價格과貴下의住所를 本欄을通하야 通知하여주시면 感謝하겟슴니다.

▲京城府內에『자유의꿈』이라는곳이至今의 무슨洞이오지요 그리고그洞里에居住하는者이오며 戶籍을請求하려면 어느곳으로하여야합니까 讀者社交室을 通하야 下敎하여주시오면 大端感謝하겟습니다 海東 金寶容

▲大端히未安하오나 英國런던에서發賣되고잇는『벤께드라인』이라는藥液販賣所住所를알려주시면 感謝하겟슴니다 朝鮮內에서도發賣所가잇슴니까요 本欄을通하야알려주십시요 「강가生」全北出浦港 安永洙

▲滿天下讀者諸彥께못습니다 未安莫甚이오나 左記雜誌社의 住所와口座番號를아시는분이 게시면此欄을通하여 指示하여주시면 大端感謝하겟습니다 一、映畵時代社 二、아이생활社 三、어린이社 張問生

▲讀者諸兄! 藥種商受驗講義錄을가지신분은 讓渡하실 意向이게시면 本社交室을通하야 價格과住所氏名을 알녀주시는대로直接協議하야 讓受코저하오니 有意하신분은 곳알려주시오 平壤 敎生

▲崔文源氏께 드립니다 그동안 京城게십니까 저는 셋재누이동생이온대 올바住所를 아지못하야 오래ㅅ동안 上書치 못하엿습니다 本紙社交欄을 通하야下敎하야주시지요 淸津 愛讀者

▲社交室을 通하야 問議합니다 生은蹴球運動을 배우고저蹴球運動에奇術과 規則을써노은適當한 書籍을求하오니 社交室에서나 發行所에서 直接通知하야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慶南昌寧郡南旨 李相性

▲여러분을通하야 問議하옵니다 저는今年十八歲의 女子인데 知識은 普通學校를 卒業하고相對者의知識은 中學以上卒業하고 무슨官廳及 會社事務員을 希望하오니 左記住所로 사진과內容을通知하옵시요 京城府 朴姓女

▲慶北乙女心氏에게▲廿五日本報를通하여 氏를알게된것을 大端히 기뻐합니다. 저도戀愛에關心을 가지고 좀研究하려고하엿습니다. 앞으로만히 指導해주시고 또慶北으로 편지를 하기를바랍니다 平壤府 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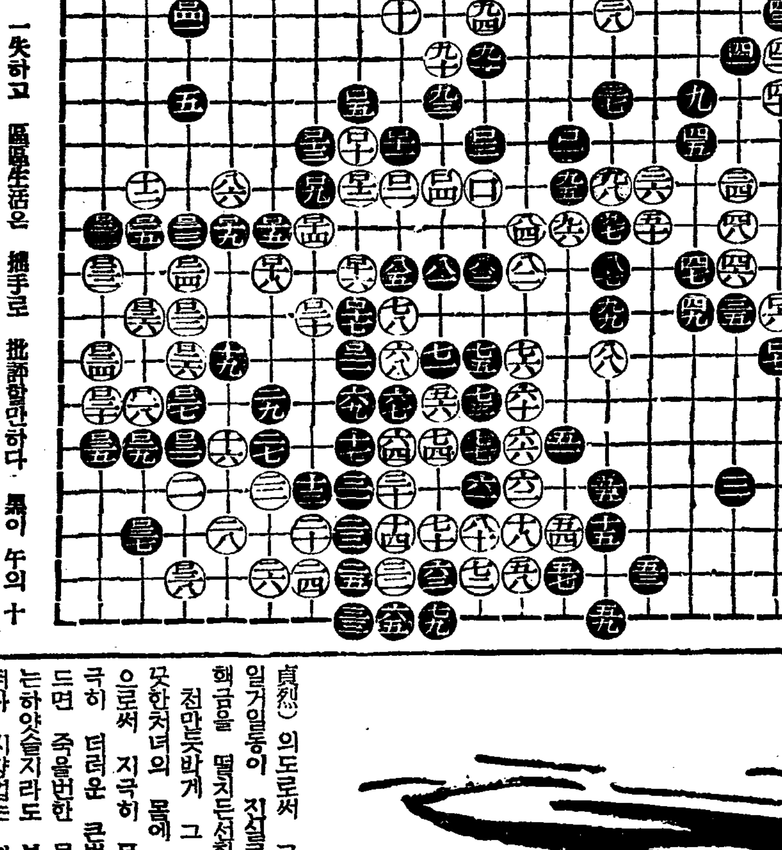
▲京城府樂仁町六一番地의四○號에居住하시든 李德基氏 現今 어나곳으로 移住하섯는지 下敎하여주시요 咸鏡北道 中에잇으시는 분이게시면本社交室을通하여 敎示하여주시면 千萬感謝하겟습니다 平元線新倉市 一讀者

▲吳容君兄이시여! 그어느보슬비오든밤 말업시北行車에 몸을실고신뒤로 消息이업서 애태웁니다 平壤으로 몃번이나몸어보아도알길이업고 지금은어데서 무엇하고게시온지요 滿洲에나或 안가시엿는지 밤마다 처량한汽笛聲에더욱 兄을그리워 마지안습니다 讀者諸賢中或右人의居處를 아신다면 急速히알리워주실수업슬가요 謝禮하겟습니다 苑西町一四一 용진

▲咸北鏡城郡龍城面松亭洞池粉玉氏여 貴下가 請求한『永遠의 微笑』를 新義州李春峰氏를 經由하여 八月中旬에 보내엿는데 한달이지난今日까지 바닷다는消息도업고 片紙를數次하여도 回答조차업스니 이것이된 일입니까 他人을爲하야 速讀하고 順番께로보내라고하얏는데 엇지된일입니까요 貴下外에 永遠의微笑를請求한讀諸氏들한테 每日가티 督促을 밧고잇습니다 하로밧비 咸南文川邑內一二一四 嘉昌浩氏에게로보내여주오 黃海道谷山 威日貫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9—

白 蔡極文
黑 丁壹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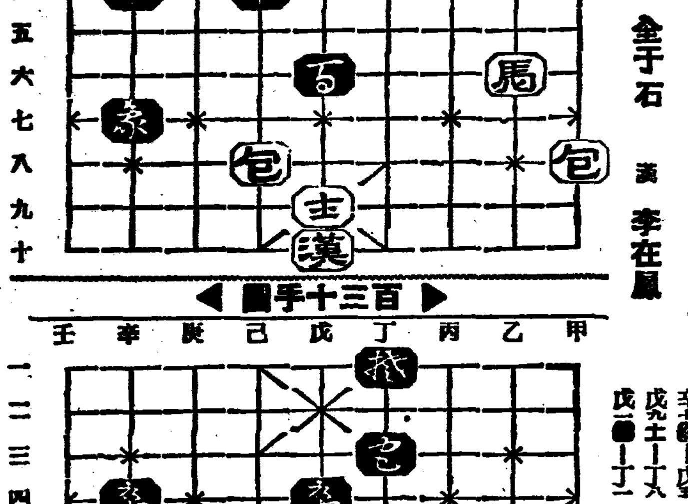
●一二九 午의十五
○一三〇 未의十四
●一三一 巳의十五
○一三二 未의十一
●一三三 未의十
○一三四 未의十三
●一三五 未의十五
○一三六 午의十二
●一三七 午의十七
○一三八 巳의十八
●一三九 午의四
○一四〇 午의三
●一四一 巳의五
○一四二 辰의四
●一四三 未의三
○一四四 未의四

對局者談 白이 大勢를 一失하고 區區生活은 搪手로 批評할만하다. 黑이 午의十七點을 巳의 十八로 着하엿스면 白이 十八危殆함을 免치못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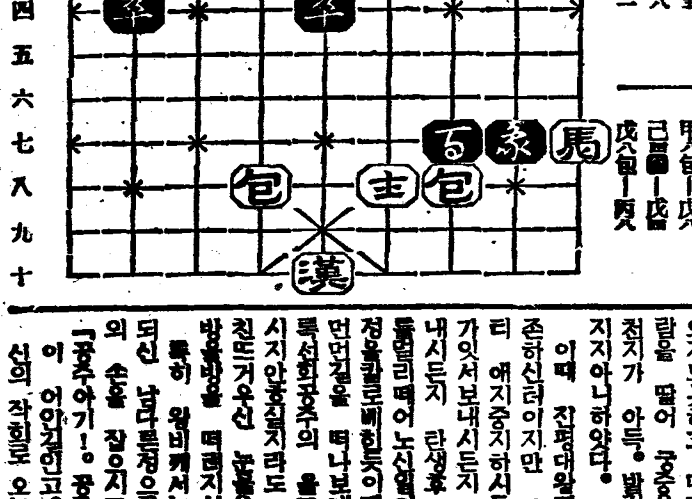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三十)

楚先手 金于石 漢 李在鳳

◀百二十手圖▶



◀百三十手圖▶



戊六卒—丙七
乙六馬—丙八
辛四包—戊五
戊七士—丁八
戊一包—丁一

丙八馬—甲七
戊五包—乙七
甲八包—戊八
己四包—戊四
戊八包—丙八

連載野談 布囊記 (一三)

(不許轉載上演)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마를캐든총각 (十九)

지평대왕께서는 선화공주를차마 먼곳으로 떼어 보내시기가 애처러우사 귀향보내자는 의론에 대하야 다시금 주저하시기를 거듭하섯다。

그러나 지명국사이하 여러대관들은 그 귀향보내자는 의론을 빽빽히 주장하야 려항에 떠도는 그고이한 소문을 한시바삐 업세기를 더욱 간청하얏다。

뜻아닌 귀향!。
억울한 귀향!。

선화공주는 이 억울하고 뜻아닌 귀향의 길에 속절업시 오르게되엇다。

슬프다。임검의 귀한 딸님의 몸으로 태어난이후 고이고이길려 그방년이 십륙세에 이르는동안 금의옥식(錦衣玉食)으로써 그몸을 길으고 충효정렬(忠孝貞烈)의도로써 그마음을 닥거 일거일동이 진실로 요조숙녀의 핵금을 떨치든선화공주!。

천만뜻밧게 그 수정과가튼깨끗한처녀의 몸에 더러운 루명으로써 지극히 무서웁고도 지극히 더러운 큰벌로써 하마하드면 죽을번한 목숨。겨우살기는하얏슬지라도 부모의 슬하를 떠나 지향업는 더러운길에올은 선화공주!。

죄인의 몸으로써 떠나는 길이라 감히 그부왕께 하직을알외지도못하고 다만 궁녀두어사람을 딸어 궁중을 떠나게되니 천지가 아득。발길이 내드듸여지지아니하얏다。

이때 진평대왕께서는 극히존하신터이지만 그금지옥엽과가티 애지중지하시든 따님을 죄가잇서보내시든지 보내시든지 란생후 십륙년동안겨틀멀리떠어 노신일이 업는 그애정을칼로베히는듯이떼어버리、천리먼먼길을 떠나보내시게되니 비록선화공주의 울고가는양을 보시지안흐실지라도 두홍안에 매친또거우신 눈물은 룡포자락에 방울방울 떠러지섯다。

특히 왕비께서는 그어머니가되신 남다른정으로써 선화공주의 손을 잡으시고

「공주아기!。공주아기!。이길이 어인길인고。어느 몹시못된귀신의 작희로 오늘날 이작별이 엇게하얏는고。어찌이 분명공주아기의 면치못할 제새의 액운이시니 설마말고。술마말고 밝은 임검의 비를 다시볼때까지—」

하시며 목메인 소리로써 느겨우실새 선화공주는 몸부림을칠뜻이 몸을 뒤틀어 몰픅하고전후좌우에 뫼신 궁녀들도 두눈이 붓도록 뜨거운 눈물을금치 못하얏다。

왕비께서는 선화공주의 손을 차마노티못하시고 느꺼 크게우시다가

「공주아기!。이것을 진이고가면 파히 옹색한것은 면할뜻다쓰고 난뒤에는 어느틈에든지 긔별만하면 또보내리이니!」

하시며 듣기 어려운 그룻을큰말에 실리어 주시엿다。

그 그룻안에 든것은 순금(純金)이엿다。

대저 선화공주가 비록뜻아닌 귀향사리길을 떠나게되엇슬지라도 그래도나라의 긔구를 베푸러먹고、입고、쓸것은 마련하얏다。

그런데 왕비께서는 멀리작별하시는애끗는정으로 순금한말을 따로 주어보내시게 된것이엿다

어머니의 정!。
거룩한손。어머니의 정!。

선화공주는 왕비께서 순금한말을 따로 주시는 그어머되신정을 더욱 망극히 생각하얏다。

선화공주가 탄 검소한 수레는 하일업시 대궐문 밧게로나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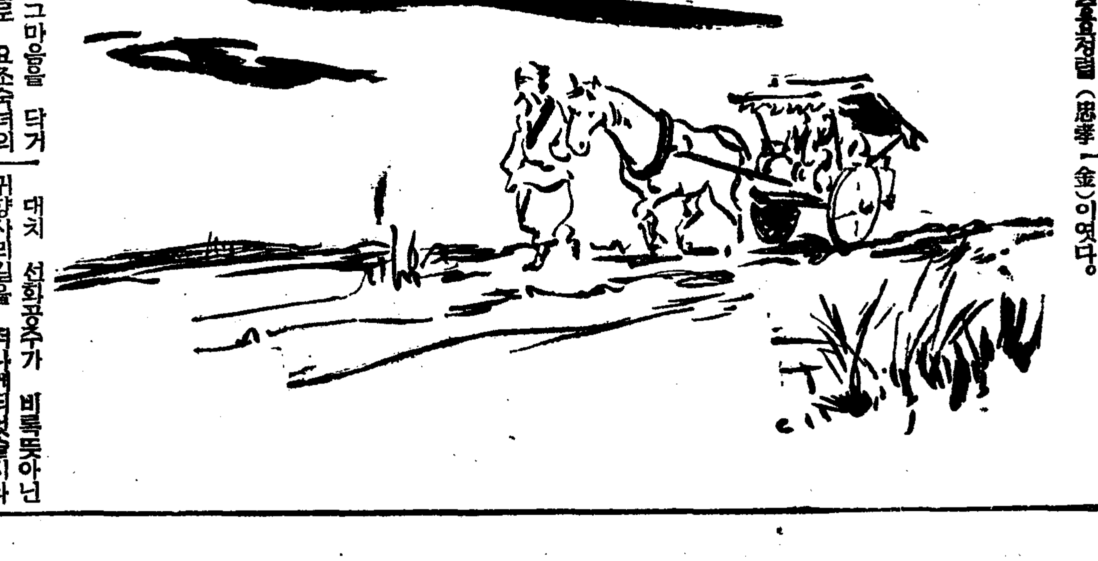
대궐문밧 너른길 좌우쪽에는 남녀로소가 모혀서서 멀리 귀향가는 선화공주의 구슬픈 길을 전송하는듯。그모아선는 남녀들도

「아이고。천만뜻밧게 멀이시지 어혜차가 어인행차。어느 몸술놈의 착난으로。공주아기씨께서 이길을 거른집 죄는분명 지지아니하셧슬터인데。」

하며 수건을 들어 흐르는 눈물을 미처 씻지못하얏다。

떨!。떨!。떨!。

선화공주의 탄 수레가 구르고 굴러 서울바닥을 지내새 창공에 몽몽한 거문구름。거리에 모흔 남녀의 눈물。진실로 선화공주의 귀향가는길을 에워싼 애끗는 풍새이엿다。



茂山地方紹介版

往昔의無名荒地 而今엔邊境要塞

木材、鐵鑛、水力電氣等等

工場地化不遠時日

今日茂山郡은 距今三百八十餘年前까지도 荒漠한 大森林과大原野라고는 그림자조차 업는蠻境荒蕪地이던것이 今日에는 木材의都로 五億噸의 埋藏量을가진 三菱鐵山、長津江의 水力電氣等工事가 着手되야 目下 急急 飛躍的發展地로 面目이 一變되여가는바 不遠한將來에 工場의 煙突이 林立할것이다 그러면 茂山의 沿革과 地勢等은 如何한가

沿革

李朝四代世宗朝에 일으기까지는 所謂女眞族의 勢力範圍이든것을 世宗三年에 現富寧郡古茂山에鎭을 置하엿다가 後十餘年을지나 現在茂山에 옴겨 오로지 邊境防備에 注力하엿는데 漸次女眞族의 勢力衰退를 따라 顯宗甲寅에 다시 鎭을 三峰坪(現茂山)에 옴기고 茂山이라 하엿다 그후 十七年을 지나 府使를두엇스며 高宗 三十一年(距今四十三年)에 府를 郡으로 改稱하야 今日에 至하엿다

位置

東經百二十九度北緯四十二度에在하야 東은長白山脈에依하야鏡城富寧과 及會寧에 接하고 西는白頭山南은咸鏡南道甲山郡에 隣하엿스며 北은 豆滿江을 隔하야 滿洲와 相對하야 廣袤ㅣ東西三十六里南北이 三十七里로 面積三百九十九方里의 廣大한 地域으로全朝鮮第一의 大郡이다

地勢

咸鏡北道의 西北部에 在한 長白山脈의 高山峻嶺이 西及東南을包圍하야 岩石이 重疊하니 平地는적고 白頭山을 비롯하야 海拔千米以上의 高峰이 十四個나되야 서로 威勢를 다투며 江으로는豆滿江이 白頭山에서 發源하야 東北으로 흘러서 紅湍 西頭 延面 城川 五龍의 五大支流와 함께 流筏과 江運의便을 돕고잇다

氣候

氣溫은 年平均八度內外며 寒暑의 差가 甚하야 七八月의 酷暑期에는 平均二十二度 最高三十五度가 되고 一二月의嚴寒期는 平均零下三十度內外氷點下三十度에 達하는 일도잇다 그러나 風雨와降雪은 比較的적은便이다 初霜은 九月下旬 晩霜은四月下旬이며 初雪이 十月下旬 晩雪이 四日中旬이요 十一月부터 翌年四月까지 西北의季節風이잇다

人口

朝鮮人이 九千六百三十八戶에 五萬六千三百七十七人이고 日本內地人이 二百九十三戶에 八百一人 外國人이 一百十一戶에三百八十二人으로 合計一萬四十二戶에 五萬七千五百六十八人이며 一方里平均一百四十四人强이다

通信

茂山 三長 延社의 三局所에 郵便局이 잇고 新站 延面에 郵便所가 잇서 이五個局所에서 精力을 다하야 [illegible] 追年向上의 [illegible] 하는것은 기피 感激을 드리는바나 郡會地外의 集配를 三日을隔하야 一次式하는것은 甚히 遺憾으로생각하는바이다 茂山邑에는 市內電話가 잇서 一日平均市內一千一百十回 市外二十餘回의 通話가잇다

交通

文化는 交通과 正比例되는것이라交通이 不備한곳에 文化가 完全할수는업다 十餘年前 까지도 長白山脈의 高山峻嶺이 西으로부터 東으로 뻐치 아플가리우고 豆滿의 長江이 길게둘으로 흘러 그야말로 人間外에 別天地엿스나 汽車는 姑捨하고 自動車도 別無通行이엇다 그러든것이 昭和三年에 咸北線(茂山古茂山間)이 開通되고 이어 白茂線이 延岩까지 開通되엿스며 今年十一月에는 楡坪까지 開通된다 新站延社間과 茂山農事洞間 茂山西江村間의 國道가 開通되야一日二回의 定期自動車가 來往되며 明年에는 茂山會寧間의 國道가 全通될것으로 아직完成의 程度는 아니라하더라도 不便을 느길빠은 업다

茂山郡內著名市 戶數及人口

	茂山邑	三長市	新站市
戶數	一、〇八三戶	四七〇戶	四四三戶
人口	五、一五四人	二、三〇〇人	二、三五一人
朝鮮人	九三五戶 四、六六〇人	四四八戶 二、一九九人	四二七戶 二、三三八人
日本內地人	一二〇戶 三五六人	一四戶 一三六人	一二戶 三一人
外國人	二八戶 一三八人	一〇戶 九五人	四戶 八人

商業

茂山의 商界는 內的外的의 原因으로 퍽沈滯狀態에 잇다 더욱이 布木店가튼것은 中國人에게 거의 商權을 빼앗기다십히된 寒心한狀態다 그러나 各層商界가 漸次活氣가 도는듯한데 茂山의商業界는 悲觀할處地에잇는것은아니다 工業界와 着着發興으로 洋洋한前途를가젓다 무엇보담 企業의 合理化와 物價의 共同調節이 一大急務인가하며 商人들만의 團體가 더욱必要할가한다 茂山邑內의 著名商店은 아래와갓다

尹義昱商店 英雄商店 韓應碩商店 和信連鎖店 姜雲龍商店 文一店 日興商店 金昌湖米店 金基在米穀店 南峰龍商店

工業

木材의 本場인만큼 邑內豆滿江畔에 金基德製材所와 裵貞基製材所가 잇서검은煤氣를 뿜고잇서從業員이 數百名에 一年間製材量도 數十萬尺締에 達한다 그外에는 崔天煥氏의 酒造場이 잇슬뿐이다

敎育

敎育機關은 普通學校十 簡易學校五 小學校二 私立學校一 合하야 十九이요 私設學術講習會가三 書堂類가二十七 前後合하야 四十九인데 就學兒童이 普校에 二千四百十名으로 推定學齡兒童七千一百五名에 對하야 三割四分에 相當하고 簡易學校五個所와 私立學校二個所의 就學兒童五百二十三名으로 各所在地面推定兒童의 一割七分에 就學하고 잇는 狀態다

醫療

茂山의 醫療機關이란 寒心한地境이다 昭和九年末 調査에 依하면 醫師五人 醫生이 十六人 藥種商이 三十六人으로 當時의人口 五萬七千二百三十一人에 比하면 醫師는 一萬一千四百四十六人에 一人 醫生은 三千五百七十七人에 一人의 比例가된다 그것도 茂山三長 延社가튼 邑會地에 駐在하고잇스므로 山間僻地에 散在한 五萬生命의 醫療問題는 實로 寒心千萬이다

宗敎

佛敎와 基督敎의 二宗이잇는데 敎會四個所에 信者二六九人 佛敎는 二寺刹에 僧侶二人信者五二三人으로 어느것이나 모다 微微한 地境을 버서나지못하엿다

金融

金融機關은 아직 銀行은업고 茂山과 延社에 金融組合이 二個所가 잇슬뿐이니 어찌 全郡民의 經濟保障과 金融의 圓滑을 圖할수잇스랴 하로바삐 銀行의 設置를 要望하는바이다

郡內重要産物

아직 地廣人稀하지라 貧富의 差가 懸隔하지안흔만큼 淳風厚俗하야 實로 武陵桃源이라 郡內의 總面積이 六十二萬一千六百六十七町八段인데 耕地面積이 一萬六百二十四町六段으로 全面積의三分에 該當하며 林野五十九萬九百町步로 九割五分에 相當한데 그中에서 國有五十三萬三千餘町步이다 昭和九年末統計를 보면 自作이 三千八百四十六戶 自作兼小作이 一千六百八十九戶 小作이 一千五百七十七戶로 總農家戶數의 二十二%인데 昭和七年으로 九年까지의 對照表는 아래와갓다

年次	自作	自作兼小作	小作	計
七年	三、八五五	一、三〇八	一、八〇七	六、九七〇
八年	三、六三六	一、六二六	一、七四四	七、〇〇六
九年	三、八四六	一、六八九	一、五七七	七、一一二

(單位 戶)

主要農作物收穫高는 昭和九年末統計에 依하면 ▲米穀一、一五一石 ▲麥類二三、三二六石 ▲豆類一九、七五一石 ▲粟二五、三〇五石 ▲玉蜀黍三、六七八石 ▲燕麥三二、八八五石 ▲雜穀五、〇四石 ▲馬鈴薯三、一九五、九二三貫

▲特産物 木材五一、〇九三九立米 蜂蜜一〇六石 一、三三〇圓 黃草八、三〇七貫 六、六四六圓 (昭和十年度)

當面問題一二三

茂山邑의 當面한 緊急問題가 一二가아니며 어느것이나 緩急이 업시 切迫緊要한 問題들뿐이다 그러나 限度잇는紙面이라 後日의 論議에 미루고 一二三問題만 略記하자

(1) 上水道問題

茂山邑의 五千餘人口에 井戶水는 一個所밧게업다면 急의眞否는 論할必要도업다 各官廳에 엇기는 잇서도 一般에게는 畵中之餠이요但 한곳에 그千餘一生이解渴을하고 잇스니 自然城川水를 마시게된다 도야지똥이 흘느고 빨내를하고 물욕질고 이무슨 非衛生的이냐 衛生을 모름이 아니라 물욕먹어야 살것스니 非衛生的일을 구태여하게된다 當局者여! 一般有志여! 하로速히 上水道問題를 講究하야 하로速히 물이나마 安心코마시게하자

(2) 公會堂及公設運動場問題

咸北의 雄邑이요 躍進하는茂山邑으로 다섯사람이 안즐곳이 업고 庭球칠곳조차업다 明倫學院의 코-트가는 공을치다가는 호령즈기에 딱하다 사람이 모혀사는곳에 모히는곳과 뛰놀곳이 업대서야 말이되랴 設備도 分數가잇다 劇場이라도조타 株式이지나 어떤形態로나 모힐곳뛰놀곳을하로바삐만들자

(3) 咸北線運賃問題

朝鐵咸北線인 茂山古茂山間의 運賃이란 私鐵의 二倍以上이다 그럼으로 茂山의主要産物인 木材의 大部分이 會寧으로 流出되고만다 茂山의 發展될 鍵은 朝鐵이 가지고 잇다 運賃關係로 木材가會寧으로 莫大한運賃을 支拂하면서 그리고流出케된다 따라서 茂山이發展이되려한들 될수가 잇스랴 안타까운 弊害다 現在의運賃으로서는 茂山의發展은 꽁지를쥐고 당겨도느러날수는 업다

茂山의重鎭人物

關北의名望家 崔南隆翁

翁은 李朝末葉에 武功에 赫赫하야 一時는 朝野에 날리든 故崔斗衡氏의 嗣子시다。 일즉 郡守와 醫務官을 歷任하엿스며 後에는 道參事 金融組合長 道評議員等 公職에 잇서서 만흔 功績을 남기고 數年來는 茂山邑南山洞自宅에서 閑日月을 보내고잇는데 如何間 茂山에 崔醫務라면 關北에 몰으는 사람이 업스리만큼 名望家이다

茂山의포-드 李昌谷氏

가튼商業도 成果敗는 갓치안흔것이다 그原因에는 無論運이라數라 關係도잇것지만 무엇보다 機會를 잘마처야한다 이에 經驗力이만코 推察力이발근 茂山의 自動車王 李昌谷씨는일즉運轉手로 新站에 滯留하든中 新站의發展이 長足的進興될을따라 交通機關이 勿論重要할것을 先見한氏는 奮然히 일어나 겨우中古車數臺로 自營自動車部란 看板을걸고 呱呱히 弱한소리를 웨친것이 不出幾年에 十餘臺의 最新式車로 新站延社間의要地에 獨線을 占得하엿고 淸津方面의 貸切等으로 十餘臺自動車가 連絡不絕로 運轉되고잇다 씨의말을 드르면 成功이랄것은 업스나 今日의 成이잇음은 오로지 妹夫되는 白龍弼氏의 物質的과 精神的後援이 컷다고한다 氏는 當年三十五歲로 前途더욱 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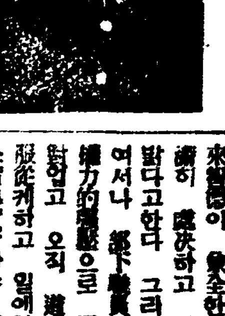
(寫眞은 李昌谷氏)

斯界에有力者 韓繼隆氏

韓繼隆氏는 性質이 快活果敢한이로 누구보단지 親切味가잇는이다 일직이 茂山郡廳에 勤務하다가 東面 茂山面長等을歷任하엿스며 現在茂山金融組合長과 茂山面協議員의 公職에 잇는 斯界의小壯有力者이다

眞實한手腕家 崔鎭中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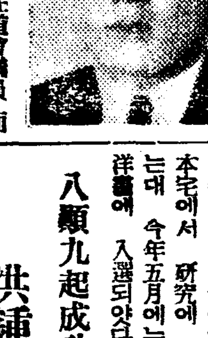
崔鎭中氏는 溫厚篤實한 人物로서 일즉이郡廳에勤務한일도잇고 多年 營林署森林主事로 在職하야 人望이 노펏스며昨年에 辭職한後 木材界에 投身하얏는대 不過幾年에 벌서相當한 基礎를 일우엇다하며 從來로 社會事業에나 貧民救濟에는 아낌업시 喜捨하는等 그의將來는 여러가지로 囑望되다고한다



(寫眞은 崔鎭中氏)

茂山의代表人物 白山商會 尹錫弼氏

茂山의 人物로尹錫弼氏가튼人物은드물것이다 力量으로보아그러하고 活動的能率로보아 그러하고 事業施設로나 其他모든점으로 보아 그러하다 氏는元來 鏡城邑出生으로 일즉부터 여러번失敗와累次의 成功으로 쓴맛단맛을볼대로 맛본氏라 臨亂에 종용하고 强事에 勇進하야 돈을잡는 솜手腕도 크거니와 돈을쓰는 솜씨가 더욱크다 敎育事業이고社會事業이고 個人同情이고 必要하다고만 生覺하면 아끼지안코 喜捨하는솜씨다 氏는아직 三十六歲의壯年으로 여러번失敗도 不拘하고 十數萬의 財産을 모앗슬뿐아니라 事業이 날로 隆盛하여간다하며 現在道會議員 面協議員等 公職과 茂山幼稚園園長의 職에도잇서 社會社業과敎育事業에 餘日이 업스며 그동안 만흔 秀才에게 學資를全擔하야 學校를卒業시켜 社會에서 活動하는사람도 五人에 達하고 現在在學中의 人도 數人잇다니 그의 人物은 이일로만하여도 넉넉히 斟酌할수 잇다



(寫眞은 尹錫弼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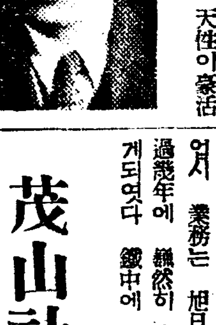
材木商成功家 楊春先氏

茂山郡內에는 木材로成功한人物이 만타 그러나 短時日로成功한人物로는 楊春先씨가 代表的이다 氏는 本是茂山郡出生으 [illegible] 小我의 利己的野望보다 團體的公益主義가 만흘것이라 茂山社會에 貢獻이 만흘것이요 將來큰 成功이 잇스리라 한다

(寫眞은 楊春先氏)

木材業界의覇王 三長陸一商會 金秉昇氏

茂山의 名物이 木材요 木材界의 覇王을 들자면 氏를論하게되고 氏를 말하자면 陸一商會를 들지안흘수업다 二千餘의 從業員과 三長과三社等地는勿論 멀리 滿洲의 琿春、安圖縣의古洞河、龍井等地의 木材와 訓戎과哈爾濱의五常等地에 廣大한 農場等그事業의 版圖는 實로크다 三長에 本店을두고 訓戎、龍井에出張所를두어 事業網을펼치고 잇는것만보아도 그의經營하는 陸一商會란 얼마나큰機關임을 알수가잇다 그러면 氏는 어떠한분인가? 本來富寧郡出生인 今年三十六歲의 小壯活動家로서 天性이豪活로 頭腦가 明晳하고 勇斷果敢한 當年三十二歲의 前途洋洋한 靑年이다 일즉이 讀賣業에 從事하다가 本來 先見之明을가진 氏의 慧眼은 木材業의 將來有望할것을 豫破하고 勇敢히 若干의 小資本으로 斯業을 着始하엿다 果然 氏의豫料에 어김업시 幾年에 業務는 繼然히 大成功을 보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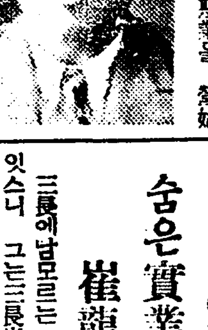


仁厚하고 氣字가堂堂하야 部下를사랑하고 늘상한사람을 同情하며 知己를爲하여는 몸을 돌보지안는다하며 貧民救濟와 社會施設에는 不惜千金하는분이며 每事에 無言實行하는이다 그리고 氏를들때 또한가지 잇지못할것이잇스니 그의父親은 故金斗源翁으로서 三年前八月에 臨終하면서 二千餘圓의 債權抛棄와 三萬餘圓의 敎育機關에 寄附와 [illegible] 아직도우리의記憶에새롭다

(寫眞은 金秉昇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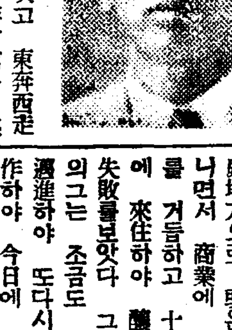
智德兼全한 茂山署長 久竹氏

茂山警察署長 久竹春喜氏는元來智德이 兼全한이로 處事에圓滿히 處決하고 每事에 勞實이 밝다고한다 그리고人民에게對하여서나 部下警官에게對하야서나 權力的態度으로 服從케함이 絕對업고 오직 道德과 人和로써 服從케하고 일에對하야서도 몸소指導實行하야 國境警備의 重任에도 遺漏업스며 快活淸廉하야 以力服人하는일은 絕對업고 以德服人하는署長으로 一般의 稱頌이 藉藉하다



茂山社會의重鎭 韓廷禹氏

氏는 重任이 剛直하고 老練高潔한 茂山社會의 重鎭人物이다 일즉靑年運動과 社會事業에 前線鬪士로 總指揮가되엿다 五個星霜을 寢食을잇고 東奔西走 南之北之로 茂山青年會館을 建築하일가튼것은 너무나그의 奮鬪한자최를 잘말하고잇다 그리고 老少各社會에 事의巨細를勿論하고 반다시 氏의手를 經하고 議를諮하지 안흠수업는 最高參謀다



(寫眞은 韓廷禹氏)

東洋畵의泰斗 南漢洙氏

氏는 茂山出生의 當年五十六歲인 老靑年이다 京城普成學校를卒業하엿스며 多年間 東面面長의位에 잇섯스나 本來 書畵에 造詣가 기픈지라 日常研究를 게을리아니하드니 再昨年四月에 面長의職을 辭하고 五十四歲의 老年으로 發奮하고 東京으로 가서 一年동안 萬難과 싸우며 硏究에硏究를 거듭하고 昨年三月에 돌아와 以來 東面本宅에서 硏究에 精進하고 잇는데 今年五月에는 鮮展에 東洋畵에 入選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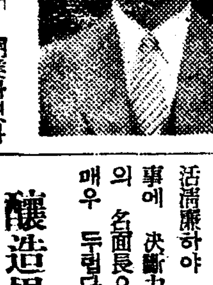
八顚九起成功者 洪鍾徽氏

여러번 失敗에도 不撓不屈하고 奮鬪努力하야 마침내 成功을한 立志傳中의 人物을 들자면 洪鍾徽氏를 첫손가락에꼽게된다 氏는 咸南德源出生으로 二十五歲때에 出家하야 北鮮 海參威地方으로 或은 間島等地로다니면서 商業에 從事하야 失敗를 거듭하고 十餘年前에 三長에 來任하야 釀造業을하다가도 失敗를보앗다 그러나 不撓不屈의그는 조금도 落望치안코勇往邁進하야 또다시 木材業을 始作하야 今日에 이르러는 新然實業界의 重鎭이 되엿다

(寫眞은 洪鍾徽氏)

醫療界의巨星 三和醫院長 金蓬昌氏

氏는 平壤出生으로 平壤崇實中學을 卒業하고 京城세브란스醫專을거처 二十七歲때에 間島龍井 三道溝等地에서 開業하엿다가 昭和二年四月에 茂山郡三長에 移轉하야 對岸인 現在의 古城里에 移轉하야 今日에 일은바 性格이沈款莊重하야 世人의 尊敬을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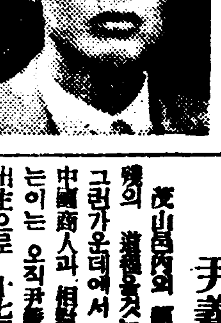


숨은實業家 崔龍石氏

三長에 남모르는 숨은成功家가 잇스니 그는三長出生의 今年三十六歲壯年인 崔龍石氏다 木材請負業으로 終始一貫하엿스며無言實行의 人物이라 今日에는相當한 財産을가지고잇스며 社會奉仕에도 喜捨를아끼지안는 將來囑望되는 人物이라한다

典型的良面長 韓舜稷氏

氏는 茂山出生으로 天性이仁厚하야 長者의 風이잇다 多年間 郵便所와 金融組合에 勤務하야 行政에 對한經驗도 만커니와 昭和十年 茂山面長에 就任한 以來 一意面民의 福利增進을 爲하야 苦心努力하고잇는바 治績이 날로새로워서 面民의 頌聲이 藉藉하다 茂山은 이제바야흐로 三菱鐵山이 開設되야 多事多端의秋라 氏는 適材適時로 더욱努力잇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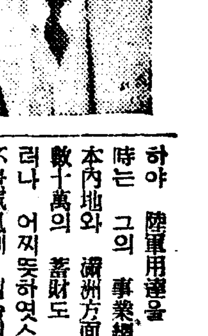


(寫眞은 韓舜稷氏)

茂山의巨商 尹義昱氏

茂山邑內의 朝鮮人商業界는 表現의 消極的狀態이 엇지아라 그러가운데에서 오직 孤軍奮鬪 中國商人과 相對로 利權을 다투는이는 오직尹義昱氏다 本是鏡城出生으로 十七年前에 茂山邑에 와서商業을始作하엿는데 金石보다 구든意志와 和睦보다 貴한信用은 終始一貫하야 今日의 大를 일우엇스며 茂山中央의 十字街에 우뚝한 그의商店은 能히中國商人을 壓倒하고 잇스며 淸津浦項洞에 今年四月에 義昱製材所라는 看板을 걸고 製材도 始作하얏는데 날로興旺하여간다하며 氏의長子尹錫俊君은 頭腦明晳하고 學識에 밝어 氏의 [illegible] 이 잇기를빈다 (寫眞은 [illegible]氏)

磊落活達의士 金碩來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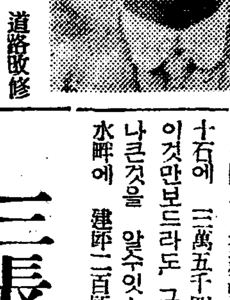
氏는 慶南蔚山府佐川町 出生의 今年四十六歲의 壯年紳士다 事業에 무슨貴賤이 잇스랴 十七歲에 집떠난氏는 咸興과 羅南等地에서 商業에 從事하엿스며 二十年前에 茂山邑에 來往하야 陸軍用達을 하엿슨데 一時는 그의 事業網이 멀리 日本內地와 滿洲方面까지 뻗쳐고 數十萬의 蓄財도 하엿섯다 그러나 어찌못하엿스랴 往年의大不景氣風에 첨삭될줄이야 그러나 大膽强腹의氏는 아직雄志滿身이라 將次 大成의날이 잇슬것이다

氏는理智가明晳하고 辯論이快暢하야 滿座春風에 衆黨을 醉倒케하는 磊落活達한人士다

(寫眞은 金碩來氏)

敏活할手腕家 三長面長 李漢基氏

李漢基氏는 三長의 重鎭이요 手腕家다 三長面長으로在任이 今年까지 二十年에 敎育、機關設置 護岸工事며 道路改修 農村振興等 그의面治의 功績은 枚擧에 不遑하며 人物이元來快活淸廉하야 對人에謙遜하고 處事에 決斷力이 잇서 茂山郡內의 名面長으로 面民의 信望이 매우 두텁다



(寫眞은 李漢基氏)

年에 茂山邑에 來任하야 雜貨商을 經營하다가 昭和四年에今日의 北一商會 釀造所를 始作하야 今日에 일으럿다 十年度 一年間의 酒造高를보면 六百七十石에 三萬五千四百圓이라한다 이것만보드라도 그의事業이 얼마나큰것을 알수잇스며 現在城川水畔에 建坪二百坪 萬圓豫算으

釀造界의權威 崔天煥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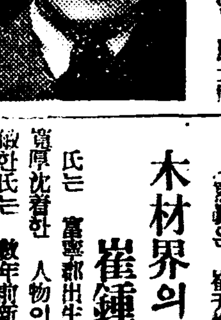
崔天煥氏는 鏡城邑出生으로 일즉 間島農校를卒業하고 大正六

鮮釀造株式會社取締役 學務委員 茂山面長을 歷任하야 事績도만흔이다

(寫眞은 崔天煥氏)

刀圭界의第一人 楊川醫院長 許珏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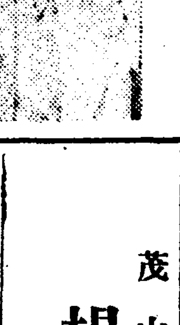
氏는 平南江西郡咸從出生으로 當年二十五歲의 靑年醫師인데 昭和八年에 平壤高普를 卒業하고 今年三月에 平壤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한後 곳平壤道立醫院에 在職케되엿섯다 그러다 뜻한바잇서 北으로茂山에와서 지난六月부터 邑內南山洞에서 楊川醫院을 開業케되엿다 아직 開業이 日淺하나 그는 德義心이 富하고 儀表가 端嚴하야 얼른보아도 淸楽의 仁術을가진 先生으로보이거니와 元來學力도 豫當하야 벌서보터 患者가 門前如市라하니 그의信望을 可히 酌할수잇스며 茂山의 土疾인 風土病 [illegible] 로 [illegible] 것이 完成되는날에는 그의聲望도 더욱 커지리라한다 氏는公職에도 [illegible] 存在이다



(寫眞은 許珏氏)

木材界의權威 崔鍾浩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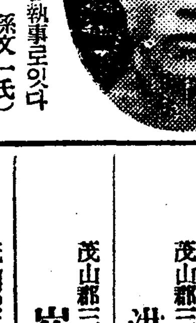
氏는 富寧郡出生으로 天性이 寬厚沈着한 人物이다 臨事에機敏한氏는 數年前新站에 來住하야 木材業에 投身한以來 斯業에 銳意精進한結果 今日에는 茂山有數의 實業家요 相當한財産도 모앗다 한다 本來 救貧과 社會事業에 同情이 만타하며 一般의 信望도 매우두텁다



(寫眞은 崔鍾浩氏)

前途가有望한 孫文一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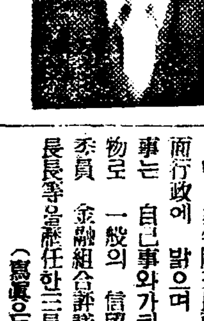
氏는 咸南文川郡出生의三十歲 靑年으로 茂山唯一의 努力家이다 일즉 淸津 間島等地에서商業을 經營하엿스나 失敗만거듭하엿다 昭和七年三月에 赤手空拳으로 茂山으로 와서 露店을 버리고 그날그날의 糊口도 못되는 身勢엿스나 氏의 堅固한意志와 百折不屈의 氣槪는 마침내 今日에는 茂山唯一의 商權을 손에쥐고잇다 氏는 耶蘇敎의 篤信者로 現在執事로잇다



(寫眞은 孫文一氏)

三長의有力者 徐允星氏

氏는 茂山郡三長市의 富家에 出生하엿스나 資質이 明敏活達한이다 多年間三長面에 勤務하야 面行政에 밝으며 面內의 大小事는 自己事와가리 보살피는人物로 一般의 信望이크며 學務委員 金融組合評議員 靑年會會長等을歷任한三長의 有力者다



(寫眞은 徐允星氏)

多角的活動家 金德俊氏

氏는 平北厚昌出生의 今年三十五歲壯年이다 故鄕인 厚昌郵便局에 十年의 긴동안 在勤하엿스며 厚昌電話局에도 勤務한일이 잇다한다 昭和九年二月에 新站郵便取扱所長으로 就任하야 十年七月에는 電信電話를 取扱케되고 今年二月一日에는 郵便所로 昇格시켜 所長으로 就任하엿는데 業務이 實로 놀낼만하다 氏는 多角的活動家요 努力家로 現在 新站東光學院設立者로 東面協議員의 要職에 잇스며 新站의 牛市場開市도 그의活動이엇스며 目下 東光學院의 私立普通昇格運動을 猛烈히하고 잇는데 寄附金도三千餘圓에 達한다한다 氏의 말을들으면 將來物質만 寄附하면오로지 敎育에 盡力하리라한다

謹告

우리茂山地方紹介版은 작든지 이미오래엿슴니다 그래서 及其他 어떤形像으로던지 世上에 내여노흐라고하엿슴니다 多幸히 茂山地方有志의 格別한 後援으로 오늘에야 드듸여 世上에 내여노케되옴을 기버하옵니다 그러나 物的과 其外여러가지 事情으로 紙面이 狹窄하게되고 紙面關係로이오지라 遺漏가 만흐며 不充分한點이 너무나만흠에 도리혀 罪悚하옵니다 可及的이면 [illegible] 後日다시 機會보아좀더 細密한紹介와 充分치못한點을 補足할約束을하옵고 이에 삼가 謝意를表하고 아울러 諸位의 더욱健鬪를 비옵나이다

祝 茂山地方紹介版

茂山郡廳

茂山警察署

茂山營林署

茂山面事務所

三菱茂山鐵山 內田嚴治

茂山邑內 崔南隆

茂山邑 白山商會

茂山邑 楊川醫院 許珏

茂山邑北 一釀造場

茂山邑 尹義昱商店

茂山金融組合

茂山邑 三興印刷所

茂山邑 韓繼隆

茂山邑 孫文一

茂山郡三長市 陸一商會

茂山郡三長市 洪鍾徽

茂山郡三長市 崔鎭中

茂山郡三長市 金碩來

茂山郡三長市 徐允星

茂山郡三長市 崔龍石

三長對岸古城里 金蓬昌

三長對岸古城里 鄭寅洙

茂山郡新站市 李昌谷

茂山郡新站市 楊春先

茂山郡新站市 金德俊

茂山郡新站市 崔鍾浩

健康慶南에 大異常
染病魔跳梁滋甚
九個月間患者累計千三百名
比前年五百餘名增加

【釜山】요사이 경남도내에 각종의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구월중에 발생한 환자가 적리병(赤痢病)일백팔십팔명 장질부사(腸窒扶斯)일백네명 기타 십륙명 합계삼백팔명으로 작년동기에 비교하건대 적리환자는 팔십오명 장질부사는 륙십사명의 대증가이고 기타전염병은십삼명의 감소이므로 결국일백륙십일명의 대증가이라하며 금년일월부터 구월말까지의 통계를 보건데 적리환자발생 오백팔십칠명 사망 일백 팔명 현재까지 신흥환자 일백 팔십 팔명 장질부사 발생 오백십오명사망 구십칠명 현재 일백사십삼명 성홍열(猩紅熱)발생오십팔명 사망, 두명현재 네명지프테리아 발생칠십삼명 사망십구명 현재 팔명기타발생 륙십팔명 사망이십삼명 현재칠명으로 총합계가 발생일천삼백칠명사망이백오십칠명 현재환자 삼백사십사명이라한다 작년동기의 발생자칠백이십구명에비교하면 오백칠십팔명의 대증가이고사망자도작년동기의 일백이십륙명에비교하면 일백삼십일명의 증가이여서 일즉이 보지못한수자이라한다 그리고 그전염병별로 작년동기와 비교하여보건대 다음과갓다

病名	年度	發生	死亡	現在患者
赤痢	今年	五八七	一〇八	一八八
	昨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腸窒扶斯	今年	五一五	九七	一四三
	昨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猩紅熱	今年	五八	二	四
	昨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지프테리아	今年	七三	一九	八
	昨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流行性腦	今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昨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今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昨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今年	一、三〇七	二五七	三四四
	昨年	七二九	一二六	[illegible]

平元線延期說에 元山官民이 奮起
官民座談會까지 開催코 討議
促進運動은 道에 一任

【元山】평원선(平元線)문제를중심으로 원산관민륙십여명은 지난륙일오후다섯시부터 원산상공회의소루상에모혀 좌담회를 개최하얏는데 석상에는함남도지사도 참석하얏섯다

그런데 평원선은 래명년도인 소화십삼년도에는 완성할예정이엿스나 국책선(國策線)인 만포진선및 길혜선과 새로히건설될 중앙선으로 인하야 부득이십사년도에도 개통치못할운명에 노혀잇서 삼십년동안이나두고 운동해오든 이철도가 이러케되다면 원산의발전상 치명적지장이 되리라하야 모혀든사람들은 만난을 배제하고라도 이선의 개통을 촉성해야되겟다고 절규햇다 그중에는 이선의 촉성을위해서 제국의회에 진정원을 보내자고까지하얏스나 결국 당국을 움직일만한 다음 세가지조항에의하야 자료를수집해서 함남탕촌(湯村)지사에게 촉성운동을 일임하기로하고 오후여섯시반에 산회하얏다

一、최근철도문제는 군사적색채가 농후한즉 평원선은 군사상 어떠지위에잇느냐? 다시말하면 군사상 웨촉성해야되겟는가? 이에대한 재료와

二、벽지산업(僻地産業)개발상평원선은 웨필요하며 그재원개발과무슨관련이잇는가?

三、선만불가분관계로보아 이평원선은 남만북및안봉선등에어떠공헌을 주는가?

落成宴費二千圓을 罹災民에게同情
馬山繰棉工場의美擧

【馬山】마산부내상남동(上南洞)에잇는 조면공장(繰棉工場)에서는 지금부터 약륙개월전에 부내빈청이정목팔번지(濱町二丁目八番地)에 총공비이십만원을드려 철근콩크리트로 이백여남녀직공을 수용할수잇는 대공장을 신축하고 최근에 그준공락성식을 거행케되엿든바 금년미증유의대풍수우로인하야 수만흔 리재민들이 사선에서 헤매이고잇슴을 본 동공장에서는 그신축락성식 연회비이천원을 자난오일 마산부를통하야 리재민들에게 긔부하엿다는데 일반은 동공장의미거에대하야 크게 찬미를표한다고한다

새옷지여四十點 井邑支局寄託
金甲淳女史壯擧

【井邑】본적을 전북고창군흥덕면흥덕리(高敞郡興德面興德里)에두고 현재 정읍군정주읍내 수성리(水城里)에 거주하고잇는 김갑순(金甲淳)녀사는 금번에 전선각지에 풍수해로인하야 모조리 죽어간다고 아우성을 치고잇는 리재동포들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자긔가 스사로 새베를 사서 새옷사십점을 맨드러 가지고와서 진심의 성의를다하여 본보정읍지국에 긔탁하엿다 이제 그녀사의 열렬한 협심으로 의미심원하게 써준 문구를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공전공후의 풍수재로 인하야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하는리재동포들의 비참한 정경을귀보를 통하여 듯고 목과할수업서서 정의을 표하기위하야 약소하나마 의복사십점을 귀지국에 긔탁하오니 수고롭우시지 마르시고 재지의형제자매에게 보내주시기바랍니다

朝鮮人靑年會 義捐모아寄託

【安東縣】안동현조선인청년회에서는 지난이십이일 이번통보육원(二番通保育院)에서 림시총회를열고 의장유동광(劉東光)씨가 사회하에 과거우리청년회에 역원들은 명예직뿐이오·실천적일군이업섯다 그리하야 이청년회는 최근에 와서 유유 부진한감이 잇다 그러면 과거우리청년회 역원은 총사직하자 그리고 가장씩씩하게 일할 용군으로 중요역원을 선거하자는 열변에과거임원의 총사직을 수리하고 일사천리로 신역원을개선하얏는데 회장김정련(金正連)부회장 강제환(姜齊煥)총무 정치진(鄭致珍) 문예부장 신언용(申彦龍)체육부장 고정운(高定운)전선부장 강도명(姜道明)씨등이피선된후 토의사항에 드러가서남조선수해구제의건에대하야는 신임회장 김경련씨가 수해상황을 말하고 떠욱우리청년회원으로서는 이것을보고만잇슬수 업다는 점에서 즉석에서 십삼원칠십전이 현금으로 수입되야 본보안동현지국을 거처본사에 발송되엿다

水災同情素劇
總收入百十七圓 營口支局에寄託

【營口】귀보=지난이십륙일밤조선인회관에서 남조선 수해구제소인극대회는 당지체육회주최로조선인민회와 본보지국후원하에개최하엿는데 지방인사의 열광적환영하에 대성황을 일우엇스며동정심이 풍부한유지 제씨의자진긔부한총금액은 일백십사원오십전의 거액에달하엿고 입장권을 판수입은 경비를제한잔액이 삼원삼십삼전인데 이상합계일백십칠원팔십삼전을 본지국에 긔탁하면서 약소하나마 본사를통하여 남조선수해리재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하얏는데 이번에자진의연한제씨의 방명과 금액은 아래와갓다고한다

▲金二十圓式 朝鮮人體育會、黃景龍 ▲金五圓式 洪一河、金洙哲、嚴仕學、信義號、金融精米所 ▲金三圓式 桑周鉉、金大運、姜潤傑、崔保卿、朴光鎬、金永箕、金喆熙 ▲金二圓式 劉龍起、金允荷、金基華、洪廷旭、白寅聖、金斗煥、金洙默、白元鉉、三義精米所 ▲金一圓式 申興福、朴宗祥、金鍾漢、徐俊讓、崔五山、三信精米所、新興公司、黃鍾奎、金舜德、金恒俊、▲金五十錢 崔基福

救世療友會主催 音樂漫談의밤
海州支局後援

【海州】재단법인 해주구세료양원(救世療養院)의직원 환자가 거의전고자들로서 조직된 구세료우회(救世療友會)에서는 오래전부터 현안중에잇든 동료양원의 재단법인(財團法人)이 완성된것을 축하고려고하여 만담(漫談)과 음악(音樂)의천재로서 널니알려진 황재경(黃材景)씨를 초청하야 본사해주지국 후원미에 오는십구일 해주극장(海州劇場)에서 『만담과음악의밤』을 개최키로되엿다는데 당일의 주요『푸로그람』은 다음과갓다 한다

▲音樂푸로그람

漫談 外國新博士

鄕歌 江上游覽

漫談 長壽法

吹笛 世界一週

民謠 아리랑

漫談 우롱과우슴

忠南道一圓에도 稻熱病이大蔓延
天安地方은全滅狀態

【大田】충남도의금년도작은 한재 수재 풍재 충재등으로 무한히 고초를당하다가 지금이야겨우결실을 보게되얏는데 최근에와서는 갑작이 도열병(稻熱病)이 발생되야 일반농가에 근심을사게하며 특히심한곳은 산간지대로서 거의전멸상태에빠진 곳이불소하다고한다 그리고 군별로보면 천안(天安)등지가 욱심하다는바그원인은 금비(金肥)등의 비료를너무과용한데에도 기인되는것이라고한다

三湧學院學藝會

【鎭南浦】진남포부산아동교육긔관으로 오직하나인 삼용학원(三湧學院)에서는 지난오일오후여섯시반부터 동학원 마당에서 제이회 학예회(學藝會)를 개최하얏다 정각이되자 원장최봉민(崔奉敏)씨와 설립자강위정(姜偉情)씨의돈긴말로 개회인사가잇슨후 천진란만한 삼백여명아동들은 순서를따라 그네들이 평소선생님압헤서 배운바모든것을 천여명관중압헤 그대로 발표하여 만장의갈채를 바덧다는바 특히잠새한교란 아동극일막은 아동들의 예술미를 여실이발로하엿다고한다

◎寫眞…救濟品發送光景(奉化)

咸南山間燕麥被害
百萬圓臺를不下
六個郡三十二面의廣範圍로
面積은三萬四千町步

【咸興】함남도산지대의 연맥(燕麥)은 구월초순부터 관수병(冠銹病)의피해를바더서 상당히흉하다고하는것은 루보한바어니와 이번함남도농무과에서 상세히조사집게한바를보면 피해구역은 장진(長津) 풍산(豊山)갑산(甲山) 삼수(三水) 신흥(新興) 단천(端川)의 륙개군 삼십이개면에 빠쳐서 그면적은삼만사천삼백삼십오정보반(反)의 광면적으로서 총작부면적(作付面積)칠만이천정보에대하야 절반이상을 점령하고잇다 그리하야 그감수할은 적어도 사할내지 칠할할이며 수확개무(收穫皆無)의 곳이 만타고하는데 최소한도로백만원의피해는 내리지안흐리라고한다

어번피해구역은 전년삼개년동안랭해(冷害)가 계속되처 초근목피로 연명하야 오든곳으로금년에 또다시 연맥(燕麥)이이와가튼 히유의흉작을 이루워서벌서부터 절량(絕糧)되고잇는 재민이 대부분이라고하며 그생도가과연우려된다

그리고금년봄 냉해대책으로배부한 우량종(優良種)도 역시재래종과가튼 피해를맛고잇다는대 이로말미아마 금후에는 연맥(燕麥)에대하야서는 전혀그대책의방도가 끈허지고말엇다고한다

福興婦人會赤誠

【永興】참으로 형언할수업스리만치 참혹함을입은 삼남지방과령동일대의 풍수해 리재동포들은 의식주를일코 긔아선상에서 쓸아린 가진고통을 바더감을 가이업시생각하야 영흥군복흥면지방진흥부인회에서는 의류 십사점을 모아가지고 본보영흥지국을 통하야 재지에 보내달라고 의뢰하엿는데 그부인단체는 다음과갓다

福興面八井里婦人會 六點

福興面永豊里婦人會 六點

福興面上馬山里靑年部 二點

躍進! 또躍進!
平壤府民增加率
二十四萬突破도不遠한時日
明年度區域擴張後의推想

【平壤】비약적 발전을 하고잇는 신흥도시 평양의 인구증가는 놀라운 형세로서 소화십년말 현재조사에 의하면 구년말보다 실로 일만삼천여인의 격증을보혀 십칠만이천칠백사십륙인이엿는데 금년오월말현재에잇서서 부호적부에 나타난수자를보면 불과 오개월에 약일만인의 증가를내고잇다 그러고 부당국에서는 십일월초순부터 정밀히 인구조사를행케되엿는데 무려 이십만을돌파하리라고 예상되는바 여긔에명년사월부터 실시하는 행정구역확장후의인구증가를 가산케된다면 이십이만대를 돌파할것으로 이십오만대도 머지아니한날에실현될것이라한다

江西敎會에서 衣類百卅餘點
本社支局에寄託

【江西】강서읍내에잇는긔독교감리교강서교회에서는 남조선의 다수한수재민이 집과의복을 류실하고 따라서 먹을것이 업서서 울고잇는 리재동포를위하야 동교회 김운일(金澐日)전도사를위시하야 네부인들이 각신도의집을 방문하여 한점두점모아 일백삼십여점을 모집하야 본보강서지국에긔탁하엿스는데 강서지국에서는 즉시 이미지국에긔탁되여잇는 물품과가티 본사로송달하야 리재민에게 전달케하얏다

棍棒과小刀로行悖 婦女兩名을殺傷
原因은精神異常者의發作?
海州署加害者를引致

【海州】정신의이상에의한 발작적행동이인지 곤봉과 칼(刀)로중년부인과 꼿다운처녀를 사상(死傷)시키고 경찰에붓들린 청년이잇다——지난륙일오후여섯시경해주군추화면부어천리(海州郡秋花面釜漁川里)팔백이십오번지 유중안(兪仲眼)(二五)은 돌연 정신의이상이 생긴것처럼 그동리에서작업중의 동리칠백칠십번지 유인섭(兪仁燮)씨의처 김경하(金京夏)(四七)부인과 가튼동리 김경우(金京雨)(一七)란 처녀를보자 뭇친듯이 달여드러 『곤봉』으로김경하부인을 구타즉사시키고 다시놀라다려나는 김경우를 따러가서 이번에는 칼로 안면기타수개소를찔러 빈사상태의 중상을입히엿다 이급보를바든 소관해주서(海州署)에서는 현장에달녀가 시체(屍體)를 해부검증하는일방 가해자유중안을 본서에 인치하고 원인긔타를 준렬히취조중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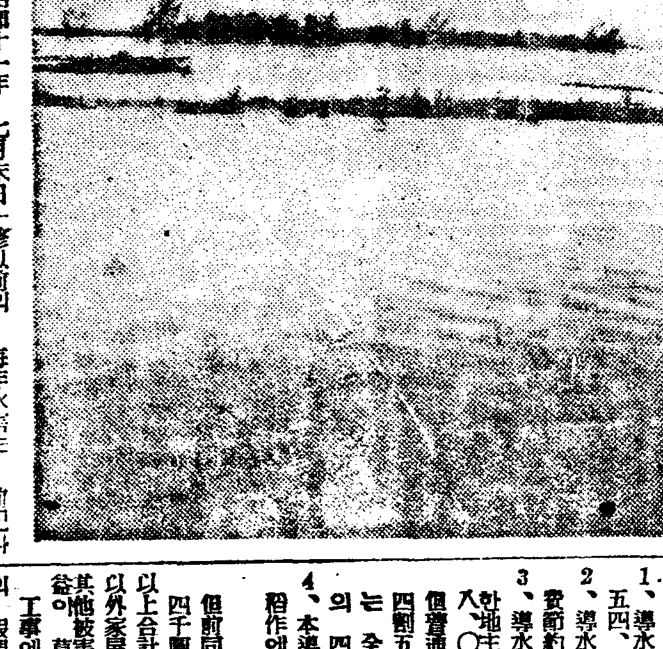
十二萬農民關係의 東津江改修問題 (五)
上流의改修로下流急激氾濫
農作物거의全滅狀態

新泰仁支局 金容稷

井邑郡泰仁面居山里以上을東津江上流라하고 居山里以下를 下流라하는대 上流部는 井邑郡泰仁面、鶯林、瓮東、七寶、山外五個面이라한다 七寶、瓮林、瓮東面의山溪는 禿山 裸谷으로 間斷업시 흐르든 流路에 砂土를 放出堆積하야 逐年河床을 노피할뿐아니라 河身의 屈曲 廣狹이 宜數치못한以外에 在來의 兩岸堤防이 極히 薄弱하야 僅少한雨量만降下하야도 곳各所의 堤防은 決潰되야 沿岸의 家屋浸沒、田畓流失、道路橋梁流失로 實로 其被害가 莫大하야 昭和五年부터昭和九年까지의 四年間 年復年被害額을 計算해보면

昭和五年度	[illegible]圓
昭和六年度	[illegible]
昭和八年度	[illegible]
昭和九年度	[illegible]
合計	三八九、七九九、〇〇

에讓步함으로 沿岸住民의 被害도 酷甚하려니와 東洋水利組合蒙利區域도 全㝵的으로 被害가만햇다 東津江이 改修되면 組合에서는 排水工事를 施設안해도 無妨할터인대 當局의 態度는 너무나 無誠意함으로 東津水利組合에서는 東津江改修를 促進하는意味와 全體的改修의 第一步로 率先하야 昭和十年에 總工費二十五萬圓을 計上하야 二個年繼續事業으로 改修할것을決定하고 昭和十年四月一日부터着工하야 去昭和十一年 七月末日에 竣工하엿다



◇…改修事業에依하야得할利益

東津江上流(鑛津堤導水路)改修以前의 每年水害는 前記와如히 五個年間 三十八萬九千七百九十九圓이다 旣往五個年間被害額에도 達치못한 二十五萬圓으로 改修한後에는 年平均六萬三千三百九十六圓의 利益을 實現할利害打算이 左와如하다

1、導水路復舊費 節約 二七、四五四、〇〇

2、導水路沿岸組合區域耕地復舊費節約 一二、八〇四、〇〇

3、導水路沿岸組合區域稻作에對한地主의 損 防止 七、八三八、〇〇

但普通作의 小作率은 收量의 四割五分標準으로 地主의損害는 全損害一萬七千四百十八圓의 四割五分으로計算함

4、本導水路故障때문에 平野部稻作에 對한地主의損害防止 一五、二〇〇、〇〇

但前同樣으로 全損害額三萬四千圓의四割五分으로計上함

以上合計額六萬三千三百九十六圓

以外家屋浸沒、道路堤防、橋梁等其他被害를 積算하면 事業의利益이 莫大하다

工事에잇서서는 언제나 洪水의 假想防止로 施設하게됨으로 全河幅은 洪水位의 餘裕四尺을 加하야 法綱幅六十間五分洪水勾配를 七百分의一로햇다 東津江上流改修는 完全히水災를 防止할뿐만아니라 住民生活向上에도 多大한 功獻이되엿다

東津江下流는 支流인院平川古阜川이 合流함으로 江이氾濫하면 물이急速히流下못된다江의元支인元川川에잇서서는金坂里地點川의屈曲型은 動行하는蛇身과同樣이다 그럼으로 從前에는 徐徐하流下하든上流의流水가 改修한後에는 雨量百耗만降下하여도 下流는 加速度的으로 氾濫하야 急速히轉流는못하고 上流로부터急轉直下하는流水가 逆流하야 沿岸은 곳水國化되고만다 上流改修後 今年에첫試驗인대 五十耗만降下해도 滔雨平野는 水國化되고만다 今年에벌서第七回채大洪水인대 稻作의成熟期에잇는今日에 禾穗가석어서 發穗못하야 實로 全滅이다 如斯한境遇에處한 地主小作人들은 上流改修가 下流被害의主因이되다고 喧嘩하며下流改修를時急히必要로한다고한다=寫眞◇…泥海化한東洋平野

本社發送救濟品
衣類二千三百點
奉化郡災民에게配給

【奉化】과반풍수재로 말미아마 리재자 만여명을 내인 공전절후의 참화인 봉화군리재자들은 그동안 각방면의 구호도오히려 홍로점설(紅爐點雪)에 불과할뿐 벌서부터 닥처오는 찬바람의습래로 긔한에쪼달려 방황하는 현상이든바 본사로부터 보내온 의류이천삼백점을 지난칠일에본보지국에서 국원총출동으로 군청과 각면소의 응원을어더 군내제지 소천(小川)조양(朝陽)재산(才山)법전(法田)명호(明湖)상운(祥雲)등 륙면에 배급키로 출발하엿는데 각면별의점수는 아래와갓다한다

小川面	衣類	九四五點
法田面	衣類	五四〇點
祥雲面	衣類	四〇五點
才山面	衣類	一四〇點
朝陽面	衣類	一三五點
明湖面	衣類	一三五點

第二回全安邊 小學對抗競技
新高山軍優勝

【新高山】함남안변군내에잇는전군십삼개초등학교 제이회대항경기전을 금월오일에 본군서왕사(瑞王寺)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엿는데 정진스럽고씩씩한광경에는 자못감개무량이엇스며 륙백미돌최후결승전에는 신고산공립보통학교군이 우승하엿다한다

慰護素劇收入 一金七十八圓

【南川】본보남천지국에서는 지난달이십오일에 이재동포위호소극을 개최하라하얏든바 불행이우천으로、하로지체되여 다시개막하엿섯는데 모든경비를 제하고 일금칠십팔원이전을 즉접 사회사업협회로 본보통신에 부송하엿다한다

棍棒强盜三名 龍川郡下에出現

【新義州】오일저녁 여덟시반경 룡천군부라면북곈동(龍川郡府羅面北系洞)황정헌(黃正憲)의집에 세명의강도가 침입하야 곤봉으로 주인을구타협박하고 현금팔원구십륙전을 강탈도주하엿는데 급보를접한 룡암포경찰서에서는 신의주와 의주등 린접경찰서에 비상수배를하고 범인수사에 협력중이라한다

地方人事

▲金守國氏(遂安長老敎牧師)遂安郡泉谷面大鄙里自宅에서遭內艱

▲曺甲俊氏(榮州署部長)新任人事次本社榮州支局來訪

▲韓永圭氏(布敎師)慶北祇林寺慶州布敎所轉任人事次本社元山支局來訪

▲河宗鉉氏(本報安義支局顧問)와洪南植孃의結婚式을 來十二日午前十二時부터 京城府民館에서擧行

▲崔日順氏(慶南道農會雜峰雄鑑別員)今番高等鑑別師 合格人事次 本報金海支局來訪

▲藤岡旦馬氏(前溫井公普校訓導)博川小學校榮轉人事次本社古邑支局來訪

▲大西謙氏(溫井公普校訓導)新任人事次同上

▲徐廷楊氏 拳鬪試合코저來邱人事次本報大邱支局來訪

竹川
代東面民秋季運動會
▲時日 十月十四日
▲場所 代東公普校廣場
◇主催 代東面民一同
◇後援 朝鮮日報竹川支局

楊平
楊平市民大運動會
▲時日 十月十一日(陰八月二十六日)
▲場所 楊平公普校運動場
◇主催 楊平邑內市民
◇後援 朝鮮日報楊平支局

文區
文區市民大運動會
▲時日 十月十一日
▲場所 文區公普校運動場
◇主催 文區體育會、文區靑年
◇後援 朝鮮日報文區分局

愛慾의彼岸 【122】

李光洙 作 / 金康穆 畵

『글세 무슨 걱정야?』

『왜 걱정이 아나요? 지금도 혜련이가 날 미워하는걸 인제 우리가 혼인만 해보아요、얼마나 미워하나?』

『그럴리가 잇나?』

『아모려나 난 실혀요。한계 사는건 실혀요。오막사리도 조흐니 따로 살아요。』

『퍽도 걱정도 만의』

『그리고 그 칠모。칠모 내 보내요?』

『칠모가 무에라기에?』

『다ㅡ 알아요。』

『무얼 알아?』

『홍 그러케 시칩이만 떠면 되어요? 다아는걸。늙으신 어른이 그게 무에야요?』

『누가 그래? 혜련이가 그래?』

『누군 알아서 무엇해요? 난 실혀요。그 칠모 안 내보내면 난 혼인 안할걸。』

이러한 문답이 김장로와 문임의 새에 오고가는것이 혜련의귀에 들렷다。두사람은 혜련이가 못 들을줄알고 하는말이겟지마는 끌작이가좁은 관계인가、긔압의 관계인가 거리에비겨서는 무척가깝게 들렷다。

그 말을 듯고는 혜련은 더 따라갈 생각이 나지아니햇다。

혜련의 눈 아페는 집안의 불화가 빤히 보이는듯햇다。아버지가 문임과 딴 살림을 차려노코 다른식구들끼리 산다는것도 비참한 일갓고 문임의 저생각을 가지고 다른 식구들과 한 집에서 사는것도 지옥인것가탓다。

혜련은 시내가 바위사돌에안젓다。그리고 멀거니 중향성쪽을 바라보앗다。휘엉을 분칠려세운듯한 그 봉들、봉우에 찬바람을 뿜는듯한 푸른 하늘! 그러나 그런것들이 다만 눈에 비칠뿐이오 혜련의 마음에 들어가지는 아니햇다。

『아아 더러운 세상、죄악의세상』

하고 혜련은 인생이 못 견듸게 실허젓다。아까 절에서 참선하고 안젓던 중들도 다 귀신들만 갓고 서울 장안에 옥작오작하는 사람들도 다 무슨 흉물스러운 마귀떼와 가티 보엿다。가장깨끗한체、가장 점잔흔체 하는사람들도 그속을 조개고 보면더러운것이 가득찬것가탓다。

『회칠한 무덤!』

과연 그러코나!

혜련은 이튼날 만폭동을 나려오면서도 도모지 흥이 나지아니햇다。김장로와 문임에게서 될수잇는대로 멀리 떠러저서걸엇다。가끔 준상이가 겨테잇슴을 깨달앗스나 도모지 심상해서 어떤 때에는 준상이 겨테서 것는것을 이저다가 그가말하는 소리를 듯고야 비로소아는 일조차 잇섯다。

준상은 보덕각시(普德閣氏)이야기를 하고 내산팔담의 전설이야기도 햇다。준상은 이 만폭동 속을 혜련과 단 둘이서 것게 되는것이 기뻣다。그는 참으로 행복을 느꼇다。길이 넓은데서는 나란이서서 것고 길이 좁은데서 대개 준상이가아플 섯다。위태한 비탈을 돌때에는 준상은 다정도 빌려주고 손도 빌려주엇다。혜련은 순순이 준상의 호의를 바닷다。그것이 준상에게는 더욱 기뻣다 준상도 혜련의 항상 시무룩한 표정을 모르는것이 아니엇스나그것은 혜련의 성격이 그러한것으로 돌렷다 혜련은 말업는중에 제 호의를 밧는것으로 혼자 해석햇다。

『저는 벌서 마음을 허한이가 잇서요』

하고 해금강에서 하던 혜련의 말이 날카로운 가시 모양으로 때때로 준상의 가슴을 찔럿스나、준상은 그것을 대수롭지아니한것으로 생각하려햇다。이모양으로 준상은 모든것으로 제게 조토록만 해석하려햇다。그러고는、

『글세 보서요。아마 그 사람이 저와 갓턴게지요? 보덕각시를 따라서 따라서 여긔까지 왓단말슴이야요。그랫더니 이 모퉁이를 돌아서서는 부지거처이든요。그러니 얼마나 슬퍼겟서요 그래 이 바위 우에 이러케 실심하고 안저더랍니다。해가 지도록 그러고 밤이 새도록。얼마나 간절하길래 그러니까。그리자 법긔봉에 아침해가 솟는단말슴이지오。그 때에 이 물에 바로이물에、그리운 보덕각시의 모양이 비치더랍니다그러그래 고개를 들어보니까 바로 저 보더굴 잇는 자리ㅡ그때에는 집은업고 바위뿐이지오ㅡ에 보덕각시가 전신에서 햇빗가든 비출 발하고 섯더람말슴이야요。그제야 그가 예사녀자가 관세음보살 현신한줄을 알고는 저긔다가 저러케 암자를짓고 일생 그암자에서 중노릇을 햇더람니다。얼마나 혜련씨와 나와 가타요?』

하고 혜련을 바라보앗다。

經濟解說

小運送의統制
朝鮮非合同業運命
(三) 李 ■ 鎬

× 朝鮮의 運合은 通運의復歸로 昭和四年十月十九日에 發起人會를열고 表面平穩裡에創立委員을選定하고 終了한뒤에 副委員長問題로 또말성이잇다가 이것亦是通運側主張대로되고 業績調査 營業開始準備에 入하얏는바 國際運輸의 出資가不可能이라는 觀測이 잇섯스나 이는國運의 若內策으로서 事實은仙石滿鐵總裁의 決裁가잇슨것을 通運側이 感知치못하얏섯던것이다。

鐵道局은 各驛業者에게 對하야 驛中心의合同을 慫慂하얏섯는데 十月末日 承認店規則廢止와同時에 指定運送規則이 發布되엇지만 運合會社가 成立되지아니함으로 橫合派은 制度交付의 方途가 업게되어 橫合同側은 致命的打擊을 밧게되엇고 新店에게 買食되는 現狀이 잇섯다。承認運送店組合은 十二月七日最後總會를열고 解散하얏는데 橫合同側은 運合創立總會가 昭和四年內에 開催되도록하라고 決議하고要望하얏스며 昭和五年에入하야도 이問題가 繼續되엇다。運合에對한 通運側의 支配權問題는 去益露骨化하야 新會社成立後株數로는 通運에 勝算이업서 策動이든차에 某知事가 社長이되리라는說로 또波瀾이 잇섯다。鐵道局의 小口扱貨物集配直營은 運輸委員會(荷主、運送業者、商議書記長으로組織된것)의 答解를어더 昭和五年二月十六日부터 實施키로決定되엇는바 代行식힐 運合會社創立이 遲延됨으로 運送合同參加店組合을 驛마다組織케하야 暫定的으로 代行케하고驛構內作業도 驛員케하얏스나그當時는通運利用이퍽적엇섯다。

× 運合會社創立事務가 進捗됨에딸어 會社設立方法을 어떠케할것인가問題가되엇스니 即現金出資는 一般業者에게 안식히다는約束下에 通運과 國運이折半하야 四十五萬圓식出資하드래도商法上抵觸되지안케 合法的手段을取키爲하야서는相當한準備가必要한것으로 여러가지案을가지고 協議하얏섯스며業績調査報告에 對하야 審査한結果 報償金配定額이決定되엇슴으로 參加店承認을 求케되엇는데 意外에 不平이적어 脫退者가極少數에不過하얏섯다 그러나通運의內心은 通運과 國運側에서 五十萬圓乃至百萬圓의 會社를 만들어가지고 買收하면서 增資하는形式을取할것가트면 中立業者에게 對한 關係가업스리라는 생각이잇든만콤 通運側은 運合條件으로서 「新店防止의 方法을 講究치안는限 從來의 가망이업스니運合에參加할수업다」라는것을내세우고 結局 또通運이 昭和五年三月十日 運合에서 第二次로 脫退하야버리고말엇다。

× 運合은 이가티 波瀾曲折을거듭하야 通運이 또脫退하얏지만 國運과 中立側만으로 運合을 進行키로하고 會社設立에 必要한資金은 國際運輸에서 引受할旨를 言明하얏스며 이에對하야 鐵道局에서는 「通運參加가 運合의 絶對條件이아니다 新會社가 鐵道局方針에 合致한것이면 豫定대로 援助하겟다」 그리하야 三月二十八日 運合第二回發起人總會를 열고通運과가티 脫退한者를 除한百二人發起人中 七十五名出席으로 會社設立件을附議하고二十九日에는 百萬圓全額拂込을마치고 手續一切를 取키로되어 「朝鮮運送株式會社」는 四月一日에 創立總會를 열엇스며 創立以來 五個年間 波瀾萬丈이던 運合은 畢竟通運이 脫退하얏스나 成立되엇는바 專務河合氏外에 取締役九名(其中朝鮮人二名)監査役二名(朝鮮人一名)이 被選되엇섯다。

× 이러한 사품에끼어 鮮友會를 中心으로한 朝鮮業者는 그去就를 어떠케 하여야할지 鐵道局方針대로 좃차야할것이냐 反對해야할것이냐 通運에 加擔하여야지 할것인지 國運에 從하여야할것이지 알수업는데다가 幹部間의 利權과 態度는 變하야 中傷策으로 더욱갈피를 잡지못하게한一方 약속바른사람들은 通運、國運 運合에 伴하야自己利害를 잘가리는사람도 적지안헛스나 二年九月 鐵道局斡旋으로 運合에 合流하기로되엇다 通運脫退로 分解作用이 이러나서運合反對業者로써 鮮運同友會를 組織하얏고 昭和五年四月二日에 創立하고 同志를糾合한結果 朝鮮人業者로서 運合反對者側이 三百名에 達하얏섯다。

× 이리하야 鮮運이創立되는 一方 通運과의抗爭이 激烈하야 朝鮮運送界는 依然混亂에서 버서나지못하얏섯다。(續)

農作物의 被害 一億圓을突破
冷旱、風水、雹、病虫害低溫多濕
災害不絕의今年一年

朝鮮의農作物은 年初에冷害를밧고 繼續하야 旱害가 發生하얏스며 記錄的 風水害와 低溫多濕과 病虫害와 雹害等連續被害發生으로被害도 農林局의 報告例에依한것을 集計하면 今年度(四月以降分)에 入한以來十月上旬에如左히 總額七千四百二十八萬一千圓이라는 超記錄的巨額에達하얏다 그內容은

雹害	一二九五、七八五圓
旱害	一〇、八六六、七五二
病虫害	一、七八一、二六三
風水害	六一、三三七、四九〇
合計	七四、二八一、二九〇

으로 이集計中에는 過般風水害의一部未報告와 黃海旱害未報告와 年初의 麥冷害가 除外되엇슴으로 今年의 農作被害高는 이미 一億圓을突破한것으로 推定된다한다

米穀統制組合에 東拓도全部加入

米穀統制法의發動時에備하야 總督府는 米穀의自治管理를目的으로한統制組合을 郡單位로서 結成케하는中인데 東拓에對하야서도 同小作人의 統制組合加入을 慫慂하얏슴에鑑하야 同社에서도 統制組合加入資格者를 調査中인바 同社의方針으로서는 右統制組合이 國策的인것임으로 有資格者는 全部이에參加케할方針이라한다

또二億圓의 赤字公債 來月上旬發行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今年度第二回赤字公債를 來月上旬에 發行할터인데 條件은 明春에繼續하야 行할 五分利公債의借換 條件을 모다 完了한 五分利 國庫債券에 比하야 著히低下할수업는 關係上大體로 左와如히 發行價格을 擬定하고年限에잇서 一年 以內延長할 方針이다.

一、發行總額二億圓
一、利率年三分五厘
一、發行價格九十八圓
一、期限十七年六個月

手形交換增加

九月中의 京城手形交換所調査에依한 朝鮮內手形交換高는 二十五萬九百八十八枚 一億三千三百五十二萬八千圓으로 前月에比하야 二萬三千百九十五枚 一千五十一萬五千圓의 增加、前年同期에 比하야 二萬一千六百五十六枚 一千九百二十三萬三千圓의 各增加이엇다

米日爲替續落

【經濟七日發同盟】今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야 賣二十八弗六十四仙으로 五仙低이오 買二十八弗六十二仙으로 五仙低이다

▲東京爲替(八日)
對米 賣二十八弗十六分九 買二十八弗十六分十一
對英 賣一志二片三十一分一 買一志二片三十二分一

▲大阪爲替(八日)
對米 賣二十八弗十六分九 買二十八弗十六分十一
對英 賣一志二片三十一分一 買一志二片三十二分一

京城勞賃昂騰

朝銀調査=九月中의 京城勞賃指數는 明治四十三年七月의 賃銀을一〇〇으로하야 一七六、七八을示하야 前月에比하면 一、四二의昂騰 前年同期에 比하면 二七、三二의昂騰이다

工業會社資金 大部分이借金
社債는高率이고少額

所謂工業金融의 中樞가되는것은社債인데 朝鮮의 實情을보면 擔保付로 朝窒三千五百萬圓、瓦電(百七十五萬圓) 金電(七百萬圓) 南鮮電氣(二百萬圓)無擔保條件付西電(五百萬圓)이 잇슬뿐으로이것中에 金電은 鐵道部에屬함으로 總額은 四千三百七十五萬圓에止하고 朝窒을 除하면僅僅八百七十五萬圓에 不過하야全朝鮮工業會社의 拂込資本金(十年初) 一億六千八百四十萬圓의八分强에 不過하다。그리고 起債會社를 보면 朝窒外는 모다電氣、瓦斯、事業으로서 一般의所謂製造工業會社가社會的經濟的으로 如何히 低地位에 잇는지알수잇다。그利率을보면 低率은四分三厘도 잇스나 高率은五分二厘에 達하야 手數料를 加하면 相當히 高率에 達하고、一般低利時代에 比較하야 低下할餘地가잇다 그리고 剩餘의工業會社의 資金은 거의借入金에依하는터로 그總額은 六千萬圓을突破하는 狀況으로 中小金融問題가 擡頭되는 一面朝鮮의 一般工業金融問題도 是正改善될 만흔問題를 孕胎코잇다한다。

朝鮮電力增資 十七日에發效

朝鮮電力(資本金二千萬圓)의變體增資에基한 江原道開發(資本金壹千萬圓)의 合併은 九月臨時株主總會에서 正式으로 決定되얏는데 來十七日로 法律上 効力을 發生함으로 同日부터 三千萬圓으로 增資活動케되엇다한다

朝鮮의產金課稅
中小金山이만허考慮

大藏省의 稅制改革內容이 判明됨을딸어 產金課稅가 明白히되엇는데 이問題는「골드·랏슈」를展開한 朝鮮內關係로 크게關心이惹起되어 殖產局에서는 愼重히 對策을研究中인데 朝鮮의產金事業에는

一、日本內地와相異하야 中小鑛業者가 八割六分强을占한 事實
一、當局의 產金政策에依하야最近의 金價昂騰으로 貧鑛의稼行을하는事實(從하야 金價値引上의利得이업다)

等의 特殊點이잇고 이點이 日本內地의巨大產金會社獨占的企業形態와相異함으로 中小金鑛業의保護助長策上으로도 課稅는此際자미업는事情이라한다 從하야殖產局에서는

一、金鑛石의 賣鑛을 行하는者에게는 特殊事情을 認함
一、法人이아닌者 乃至資本金額에 制限을 設하야 小額인것에 特殊事情을 認함

等의 諸案을 研究中으로 中小金鑛業助長策을 重要考慮할豫定이라한다

經濟界消息

○日本高周波第二次買電計畫=日本高周波重工業에서는 最近朝鮮電氣에서 五千키로買電키로決定하얏는데 今回更히 二萬키로를 長津江電力으로서 買電키로 計畫하고 遞信當局에 希望하얏다 右外에 黃水院江으로부터도 五萬키로 買電할豫定이라고

○藤原銀次郞氏入京=王子製紙社長藤原銀次郞氏는 十九日入京하야 總督府의產業經濟調査會에出席하고 北鮮製紙의吉州工場을視察한後 月末北鮮製紙定時總會에 出席하고 歸東하리라고

○加藤總裁歸任=渡東中인 加藤朝銀總裁는 十七日頃 歸京하야 十八、十九兩日 全朝鮮工業者大會에 會長으로서 出席하고 繼續하야 二十日부터產業經濟調査會에 出席하고 二十八日釜山서 열리는 全朝鮮銀行大會에 出席할豫定이라고

○土建協會評議員會=京城土木建築業協會理事로서 總督府로부터 推薦된 財務局谷助市、京城府內務課長森武彥의兩氏는正式退官하얏슴으로 協會에서는 十二日午後一時부터 評議員會를開하고 右兩氏를 理事로選任하고 伊達、谷、森의三理事互選으로伊達四郞氏를 正式으로 會長에 推戴키로되엇스며 鐵道局推薦의 理事候補者는未定이나 決定되는대로 理事一名을 補充하리라고

○黃色種煙草廿五週年紀念=京城地方專賣局忠州煙草耕作組合主催下에 來午前十時半부터 黃色種煙草耕作二十五週年記念式及同紀念碑除幕式과 耕作功勞者表彰式을 擧行함으로 居專賣局長、信原專賣課長、佐藤技師等이 列席하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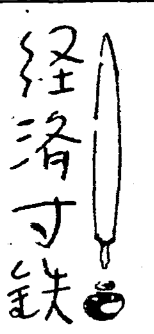
○金融組合聯合會資金課長就任=金融組合聯合會資金課長은 理財課銀行係主任 林田佐八郞氏 就任이正式決定되엇다

商店界消息

○東洋百貨相互會社創立計畫=三日發起人會를열고 年內로 會社를 創立키로 決定하얏다는데資本金百萬圓으로 一千三百株는 發起人側에서 引受하얏고七百株는 公募하리라고

取引停止 (十月五日)

▲京城府和泉町二〇七番地 宇光工業所 金炳宇▲醫藥業 京城府南町九八番地 柳基春▲카스테-라 京城府本町五丁目四八番地 長崎屋 毛利裕彥



○重要肥料統制法 實施를압두고野口財閥이 말성이라고
○朝鮮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모다 朝窒을通하야 販賣케하라고 버틧다니 朝鮮市場을아조 獨占하자는수작
○갓득이나 實効가적을 統制가「코아뿌」가될모양
○丙子一年은大豆年 農作被害만 一億圓이라고
○이損害를 어떠케 賠償할가?

重要商品界事情

人絹生產激增

人絹聯合會調査의 九月中人絹生產高는 二十二萬九千百九十圓의 激增을 示하야 다시新記錄을 示現하엿다 이러케增產된것은 十月末을 限度로한 各社의 增錘計畫의 進捗及 太陽레온의 生產이 加하엿기때문이다 內譯은 如左한데 特殊絲는 漸次 增勢頓挫한反面 普通絲는 再次 增加傾向으로 轉한것은 注目된다

(單位函 △印減)

	九月	前月比
▲普通絲		
百D以下	[illegible]	[illegible]
百廿D	[illegible]	[illegible]
百五十D	[illegible]	[illegible]
二百D以上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特殊絲		
百D以下	[illegible]	[illegible]
百廿D	[illegible]	[illegible]
百五十D	[illegible]	[illegible]
二百D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總計	[illegible]	[illegible]

綿絲生產減少

【紡績聯合會調査】九月中의綿絲生產高는 綿業日數가 月前보담 一日만헛스므로 多少增加할것으로 豫想되엇스나 그豫想을 逆으로 一千三百七十二梱半의 減少를 示하야 二十九萬四百十五梱이되엇다 이減少原因은

一、約定의 進展難 即 製品賣行不振으로 各社는 可及的減產을 斷行하야서 所持綿을減少시키지안는것
二、能率低로 能率이 減退한것
三、特히太番의 減產이 顯著하엿든것

이太番減少의 原因에關해서는 여러가지 臆測이잇는데 一部에서는 會社의 吊上策動的對策이라고한다

그리고 그內容은如左하다

(單位梱 △印減)

	生產高	前月比較
太番	[illegible]	[illegible]
廿手	[illegible]	[illegible]
中絲	[illegible]	[illegible]
細絲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商況 (八日)

株式 鐘新高로 好調

前場上進 今前場은 大藏省의 新稅率發表로 好感이엇시寄付에는 東新百卅六圓六十錢、鐘新卅八圓十錢、日產八十三圓十錢으로 平凡하엿스나 鐘新이假然爆騰하야 百七十六圓九十錢을 보이자 東新百卅八圓四十錢、日產八十三圓九十錢으로 躍進하고 日曹도 七十二圓五十錢에 大引하는등 强調이엇다

▲鐘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後場續高 後場은 東新百三十八圓十錢 日產八十三圓九十錢 鐘新百七十七圓十錢으로 繼續强調이엇다

▲大阪株式情報

一、各種目의 稅率發表도 取引所關係의것이 未發表이기때문에 意外로 反應薄이다
一、電工은 過買反動으로 一圓四十錢低이오
一、軍需關係株는 利喰下押으로 不勢이며
一、人絹株는 三品人絹市價의好調로 强調이며
一、電力株는下擺이오
一、日蘇은五分五厘의 薄利廻로이미 買上된것으로 金塊高도 反響이시利喰一翻와함께 七圓五十錢의 下値押으로부터 押目買에 八圓台로跳躍하얏스며
一、日立은增資豫想에 急騰하엿스나 增資도 確定的이 아니기때문에 高價買는 戒
一、新鐘은 拂込을 材料로 强氣의 煽揚買가奏効하므로 東京側이 買進하고
一、新東은買方處分說이엇다

幾分明朗化?

大藏省에서 昨日發表한 稅制整理에依한 新稅及改正稅率은所得稅를 中心으로 相當한 增稅가보이며 特히 法人所得에도相當한 重稅가 賦課될모양인데그래도 一般金融界에서는 現今과가튼 低金利時代에잇서서 이만한程度의 稅率은 잇당히 覺悟하여야 할바이라고 比較的好感인모양이다 이氣分은 市場에도增稅에對한 從來의恐怖를 緩和한모양으로 今朝에는 昨日百七十三圓六十錢에 低迷든 鐘新이一躍百七十七圓九十錢으로 奔騰한것을 爲始하야 東新도 百三十八圓을 回復하고 日產이八十四圓臺를 겨누고잇는 活潑한場面을보엿든데 아직도 政局에對한 一抹의不安과 日中問題等悲觀材料가 업는바는아니나 大體로 氣分은明朗化하려는 氣味가여보엿다

鐘新의前途觀

鐘新이 今前場에 躍騰한것은 注目할만한일인데 鐘新百十圓으로부터 奔騰한것은 昨年八月이엇스므로 一年以上 價格으로보아서 六十餘圓을 치켜올렷는데 最近의 經過를 보더라도 去月十二日에 百七十六圓丁을 보인以來 三週間餘를 百七十圓臺에 保合하엿다 그러므로 今朝의行動은 이百八十圓 關門突破의準備가 完成된것을 暗示함일가 某專業家는 鐘新의豫定價는 百八十七八圓의 位置라고보고 이市勢를보이지안흐면 反動가를反動이 업스리라고까지 揚言하고잇다。이와가티 强氣側이 目前百八十五圓을보고잇는 鐘新의前途는 注目할만하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一〇〇、五三 ▲第三五分利一〇〇、九五▲一回四分利一〇一、五五 ▲二回四分利一〇一、五三 ▲佛貨一九六、四五▲滿洲米貨六分半三九六、五〇 ▲滿洲公債一〇〇、二〇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發表된 新稅率이 업스리라는터이므로 依하면 公債는 比較的優遇되고잇는터이므로 漸次 安心氣分이되고 米貨六分半五分半이모다 一圓三、五十錢反撥하고 其他도 堅强한 保合이엇다

▲甲五分利[illegible] ▲二回四分利[illegible] ▲佛貨[illegible]

實物前場取引

▲大同產業[illegible]▲에라파이新[illegible]▲京南鐵道[illegible]▲滿洲工業[illegible]▲日滿아주마新[illegible]▲東亞煙草[illegible]▲東邦人造纖維[illegible]▲同新[illegible]▲日本아루미製[illegible]▲取引[illegible]

期米 突込警戒 反戻

前場保合 昨後場阪地二十八圓五十二錢止와共히 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八圓五十三錢에 寄를揚하고 二十錢高로場을始하야 十五錢인 三十二錢인 二十錢으로 小反落하엿는데 阪地五節四十錢에 寄한後 聯합을딸아 十丁內外의反落을告하더니 結局阪地五十三錢으로返戻하며 保合狀態이엿다

後場反撥 後場은 二十六圓五十三錢인 十三錢高로 始한後 一二三錢六十三錢으로 結局五十一錢에 止하다

人氣의轉換期 小口投物續出

所謂朝鮮의 丙子年凶作이라함이 얼마나 仕手들의醜言를 輕蔑케하엿스랴? 朝鮮의凶作만에 제被害 株來買方은아즉도 强氣를버티지못하고 잠짓 買戰線을 固守하고잇는모양이다 띠구나 阪地의 田中貢과如한 買方主力側이 依然彌漫을 鐵宕으로 頑强防戰하고잇슴으로 此에追隨된 買方은 可謂狐假虎威와如히 持久戰을하는모양이나 大豊作의 威壓을바든 田中貢도 既히滿腹되어 悲鳴에빠저잇는 狀態이며 말아서 小口側買方은 恐怖에싸이어 投退하는觀이업지아니하다 果然本年豊作의 市勢가 此邊의底價로서 一段落을 告하엿다하면 暴으거니와 그럿치안코 又復一落을加하는때는 買方의 總退城을 當하게될모양이니 人氣轉換時代는 멀지안흘것이다 人氣가 轉換되어 買物의投物이 一巡한後에는 비로소 底入을내고 昂騰途程에 入하지안흘가한 商談이多하다

底價鍛鍊時代 深入落도難望?

日本內地米作第一回豫想發表가 七千萬石에 接近한大豊作임에도 市勢는 既히慘落에慘落을 거듭한後인만큼 새삼스러히滑落을告하지못하고 中途彷徨의觀을呈하더니 幾分量死守하든 邯米買方의投物이 再演出되어 又復七、八十丁의瓦落을告하엿다 此邊에는 賣方의利喰的買物도 急據現出하야 俄然下値光景을呈하나 그러나 원악大豊作의 新穀期에入한此際이라 또다시 一落을加하지안흘가한商談도업지아니하다 要하면 米穀自治管理法의 發動은 必至할것으로 누구나 豫備하는 바이나 그發動의市價範圍가 자못注目되는바인데 現下二十八圓値인 二十八圓七十錢의 以下임으로 賣警戒를하지안흘수도업스며 一方의見解로는 自償發動의 中間價格인 二十七圓四十六錢임으로 아즉도 賣餘地가잇다고볼수도잇다 그러나 大體의形勢는 深入落을期待키 難할것갓고 從하야 此邊의市勢는 底價鍛鍊이 아닌가하는感도 업지아니하다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商通】玉整理一巡에利喰이 急하야 上寄하엿스나 利喰外에는 買物이적고 地場軟派의 優勢賣와 神戶側賣에 壓倒되어 下向賣叩되엇스나 그後利喰이 現出하고 東京側의 買物이 出現하야 回復으로 轉하엿는데 越中米가 高唱하야 採算이 다하야 淸算이 回復되면 實需가 잇슬것으로보아 큰 上價期待는 적다고 보고잇다 今朝來 今村店이 賣한것은 神戶의 小原이라고한다 小原은 이미 一二萬石程度의 賣玉이잇고 또 廣瀨 岡崎의兩店이 連接買進한것은 東京의 朝取와 山種의買進이 잇다고한다 그런데 最近山種은 相當히 買進한 모양이다 또買方主力의 田中貢은 沈黙을 지키고잇다 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 中谷 中東側 地場弱氣
買方 台灣側 東京側地場强氣

朝取期米取組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軟化 奧地의賣物이조금식 市場에 出來하나 買氣가 全然업서 氣配二〇錢 軟化이엇다 ㊀三等二七、五〇 四等二七、二〇 一等白米三一、五〇

仁川續落 日本內地引合이 依然不齊로 賣需가 조금식잇슬뿐 產地도 意外로 賣惜하고잇스나 淸算의 軟弱으로 氣配는 二十錢低唱이엇다 ㊀三等二七、五〇 四等二七、二〇 一等白米三一、七五

釜山續落 頭上快晴에 奧地의 賣物이 逐日旺盛을 極하나 買方은 消化할수업서 氣配二十錢의 續落을演하엿다 ㊀三等二八、五〇 四等二八、二〇 一等白米三三、〇〇

大邱閑散 繼續하야 定期의低落으로 市場의 氣迷가기며 新米出廻待에 閑散裡에保合이엇다 ㊀三等二七、七〇 四等二七、四〇 一等白米三一、六〇

群山續落 期米保合이나 天候好順과 所持側의賣急에 氣配는 二十錢低唱이오 新米도 이에伴하야 十錢低落하엿다 ㊀三等二七、八〇 四等二七、六〇 一等白米三一、三四

木浦不變 定期의 氣迷를 [illegible]

六感

株……法人所得稅가 倍額으로 增稅되한다하여도 곰직도안코 오히려 好感하는 金融界는 昭和五年의 그것과 雲泥之差 ▲日中關係를파는가하면 日蘇關係를사서 日曹가高고 ▲法貨切下로 砂糖株、麥酒株가 低落되는가하면 產金株는 買集되는 離色의 株界 ▲鐘新의 率先行動은 相當히 注目되는걸 또增資拂込을떠드나보다……

米……買方의再度投物이現出하야 昨日의又復瓦落을告하엿고 從하야 賣方의利喰急으로 依然反撥◀如斯한市勢의歩調를보면 底價鍛鍊의行動도가래보인다◀何如間深入落은難望인가하노라◀아프로期待하는材料는米穀自治管理法의發動인데 現下阪地先限卅八圓四、五十錢은 即最低公定價格의 一割上値의 下値임으로 賣方의不安도不無◀그러나 最低公定米價가다시 決定될모양이니 昨年보다의引下냐 引上與否가또注目꺼리

今日財界 (八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㊀三等米一石	[illegible]	[illegible]
京城一等白米百키로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一斤 演三等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糸	[illegible]	不變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	—
고무FAQ	[illegible]	[illegible]

金融八日

◆海外經濟◆ [illegible]
◆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塊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八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商品八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京城雜貨◆ [illegible]
◆鯡粕相場◆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康益夏商店 米 株 仁川 京城 金益證券部

株式 八日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實定 代引 日步◆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東京株◆ [illegible]

期米 八日

◆朝取期米◆ 前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後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 中 先 出來高 [illegible] 本期總計 [illegible]

期米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 本町三丁目

◆大阪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單位錢 [illegible]

株式 期米 仁川本町 玉 柳來恒取引店

商品 八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桐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現物糖(S、T) 賣買中値 [illegible]
◆치카고期米◆ [illegible]